

전국대학생 총궐기 “교육시장화 전면 철회” 요구

한총련, 전학협 등으로 구성된 교육학생연대(대표=구정모·서울대 총학생회장)가 지난달 29일 종묘공원에서 전국대학생 총궐기를 진행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4천여명의 학생들은 이날 총궐기에서 '등록금 인상 저지·교육재정 확충·교육시장화 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올해는 국·공립대 등록금이 큰 폭으로 인상돼 해당대학 학생들의 참여열기가 높았다.

이날 연사로 나선 김형주(전남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임시의장은 “교육시장화로 인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재정을 국민에게 전가시켜 등록금이 인상됐다”며 교육재정 GNP대비 6% 확보와 등록금 자율화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교육학생연대 구정모 대표는 “기초학문이 붕괴되고 대학간

부분별한 통폐합이 진행되는 것은 교육부의 시장화정책 때문이며 전국적으로 연대해 이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의문을 통해 교육학생연대는 △대학 구조조정 반대 △WTO 투자 협정 반대·교육 개방 저지 △국립대 특별회계법 저지·사립 학교법 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앞서 연대단체인 전국교수노조(위원장=황상익·서울대 의학) 이용구 부위원장은 “대학에 침투하고 있는 교수계약·연봉제 등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학내 구성원 모두 뜻을 모아 반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명동성당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교육시장화정책 철회 요구를 알렸다.

대학부
dmz@dongguk.edu



전국대학생 총궐기가 지난달 29일 종묘공원에서 열렸다.

연태규 기자

단과대 발전회의 활성화

경쟁력 강화 위한 ‘논의의 장’

재정 고려한 실현가능 방안 모색 필요

최근 들어 각 단과대의 자체 발전을 위한 회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몇 년 전부터 단과대가 학교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특성화하는 추세 때문이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에 학문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필요성도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얼마 전 중장기 발전 방안을 내놓은 불교대(학장=한보광·선학)는 2년 전부터 발전연구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와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최근 불교전문대학원을 신설하기로 하고 문화재 관리학, 장례문화학과 같은 실용성 있는 학과를 대학원 내에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것은 불교학이 기초학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전공이수학점을 54학점에서 60점으로 상향 조정해 전공의 내실화를 기했으며, 후원의 밤과 불교계 언론 광고를 통한 발전기금 모금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경영대(학장=이승영·국제통상학) 역시 발전기금 모금에 적극적인 단과대 중 하나다. 지난달 29일 열린 ‘경영대학 발전을 위한 전체교수 워크숍’에서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동문회 활성화와 경영대학 교수들의 기부금을 모아 단과대 장학금 등으로 사

용하는 ‘Seed Money 조성계획’ 등이 논의됐다.

또한 4학년 2학기를 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졸업자격을 부여하는 등 경영대 특성을 살리기 위한 교과과정 개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학부제 도입으로 전공 편중현상이 심각한 문과대(학장=김항배·철학)는 발전위원회를 구성, 올해부터 문과대와 인문학부로 분할 모집해 기초학문이 도외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다.

각 단과대 발전방안은 공통적으로 △우수교원 확충 △학습 환경 개선 등 재정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김항배(철학) 문과대 학장은 “발전기금 모금과 함께 재정을 고려한 실현가능성 높은 발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나친 단과대 발전 모색은 자칫 단과대 이기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각 단과대 발전 회의는 타 단과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교수로만 구성된 발전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성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기 기자
chof55@dongguk.edu

본사 신임 인사발령 장영길 부주간·류변성 국장



본사 부주간에 장영길(경주캠퍼스 국어국문학, 사진 위)교수가 임명됐다. 신임 장영길 부주간은 본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97년 본교에 부임했다.

신임 류변성 국장(사진 아래)은 본교 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92년 본교에 부임해 교육개혁 추진단 등에서 근무했다.

SCI급 논문 1편당 최대 1천만원 지급

지원대상 사전 선발 안해 ... 연구 활성화 기대

본교가 올해부터 SCI급 논문을 게재할 경우 1편 당 최대 1천만원까지 연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교수들의 연구 분위기 쇄신과 연구 수준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제도는 단독 연구의 경우 기존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공동 연구 또한 약 3배정도 연구비를 인상 지급한다.

그러나 일부 교수의 연구비 독점점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별 논문 게재연구비 총액을 2천만원으로 제한한다.

이번 제도는 특히 사전에 지원대상을 선발하지 않고 SCI급 논문을 발표한 교수 모두를 대상으로 연구비를 지급하며, 지원 편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SCI급 논문은 국제적으로 저명 학술지의 색인목록을 관리하는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의 평가기준으로 만들어진 △인문·예술분야 A&HCI(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사회과학분야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자연과학분야 SCI(Science Citation Index) 목록에 수록된 학술지의 논문을 말한다.

발전기금 ARS 060-700-0119

동국발전기금 자동응답접수(ARS)번호가 지난달 27일 바뀌었다. 기존 02-700-0119에서 서울지역번호였던 02가 060으로 변경됐으며, 나머지 자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체육부 전국대학대회 출전

야구·축구 14일 각각 첫 경기

야구부와 축구부가 각각 오는 13일 개막하는 전국대학체군대회에 출전한다.

야구부(감독=한대화)는 △동아대 △대불대 △중앙대 △제주관광대와 같은 조에 편성돼 8강 진출을 겨루며, 대회 둘째날 오전 10시 인

천야구장에서 동아대와 첫 경기를 갖는다. 또한 축구부(감독=김승기)는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속초공설운동장에서 관동대와 첫 경기를 가지며 △관동대 △선문대 △고려대와 32강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된다.

보리수

줄탁동시 (啍啄同時)

향간에 “그것이 우리의 화두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화두(話頭)’란 주로 선가(禪家)에서 쓰이는 순수한 불교용어이다.

이러한 화두의 하나로 ‘백암록’에 나오는 ‘줄탁동시(啍啄同時)’라는 화두가 있다. 그 내용인즉, 닭이 알을 품었다가 닭이 차서 알 속의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찌는 것을 줄(啍)이라 하고, 그 반대로 어미 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맞췌아 껍질을 깨뜨려 주는 것을 탁(啄)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동시에 일어 나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하여 온전한 병아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선가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지도하여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마치 어미 닭이 소중하게 알을 품듯이, 스승이 제자를 끊임없이 보살피서 그 근기가 무르익었을 때,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이다.

결국 사제간의 인연이 어느 기회에 딱 맞

아떨어지는 것을 선가에서는 ‘줄탁동시(啍啄同時)’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선가의 지도법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현대교육에서도 참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말하자면, 스승은 제자를 위하여 참되게 ‘탁(啄)’을 해줄 수 있는 안목과 지도가 절실히 요망되고, 제자 또한 스승을 존경하고 학업과 인격도야에 전념하여 언제라도 ‘줄(啍)’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결국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어느 한 쪽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줄탁동시(啍啄同時)’는 가장 이상적인 사제지간(師弟之間)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벌써 신학기도 한 달이 지났는데 서로간에 ‘줄탁동시(啍啄同時)’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장 계 환
불교대 불교학과

‘형량사건’ 징계위 소집

두달 안에 징계여부 결정

법원세 환급금 횡령사건과 관련한 동국학원 징계위원회(위원장=현성, 이하 징계위)가 지난달 27일 열렸다.

이번 징계위에서는 지난 1월 회부된 전 법원사무처장을 비롯한 2명의 소명 발표가 있었으며, 징계여부는 앞으로 열리는 징계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한편, 징계 여부는 징관에 따라 사건관련자가 징계위로부터 소집 통보를 받은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알림

학내 정전으로 인해 신문제작이 불가능해 다음 신문은 4월 15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지면안내

6, 7면 대학국제화 어디까지 왔나

많은 대학이 국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양적 성장에 그치고 있다. 이에 그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본다.

4면 여성 운동 대담

11면 중독, 정신적 자살

수습기자 모집광고



우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 바로 동대신문 기자입니다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부 (본사에서 배부 중)
②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1장 분량)
- 원서마감 및 선발 : 4월 3일(수) 오후 6시
- 장 소 : 본사 회의실 (학생회관 지하 1층)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및 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됩니다.

발전기금 060-700-0119

교육환경개선 투자 논의 이뤄져야

사실상 등록 마무리 ... 총학, 불교병원 반대 나설 듯

지난달 29일 등록금 공개협약이 무산되고, 98%가 넘는 학생들이 등록을 마치면서 등록금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학교당국과 총학생회는 지난 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등록금 협의를 진행했다. 총학생회는 3차 협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학교측은 "공식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 협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등록율이 98%를 넘어서면서 사실상 인상을 조절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등록금 협의 평가=두 번의 협의자리 모두 학교와 총학생회측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원칙적 입장 표명에 그쳐 교육환경개선투자 등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불교종합병원의 수익성 보장 여부에 대해서도 서로 엇갈리는 공방을 펼쳤을 뿐이다.

총학생회는 올해 '새터사고 이번 계약' 공개 이후 등록금 협의 실무주체인 학원자주화투쟁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조직적인 어려움으로 등록금 투쟁을 활발히 펼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사이버 릴레이 시위를 제외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리는 특별한 활동이 없었던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총학생회는 앞으로 불교종합병원 문제와 더불어 학교당국과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지난달 전달된 중앙요구안을 포함, 조만간 학교측에 전달할 예정인 각 단위학생회별

요구안을 바탕으로 인상된 등록금이 교육환경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현황과 전망=총학생회가 불상 앞에 마련한 공개협의 자리에 학교측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고, 이날 모인 150여명의 학생들은 총장실을 향의 분배에 이를 저지하는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공개협의 무산 후 총학생회는 "학교가 먼저 나서지 않는 한 협의를 갖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학생회는 올해 최대쟁점인 불교종합병원 조기에 반대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98%가 넘는 학생이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학교당국이 먼저 등록금 협의를 제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학생회는 이와 관련

"지난 2년간 예·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월·적립금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측의 등록금 인상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인상분 반환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앞으로 총·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등록금인상에 항의하는 단식투쟁을 오늘(1일)부터 총학생회 해오름식이 열리는 오는 1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양희창(반도체4) 부총학생회장은 "해오름식에서 학생들의 열의를 결집해 학교당국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총학생회 해오름식은 등록금투쟁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이유있는 상경 ...

경주캠퍼스 한의대 학생회(회장=김영수·본2)는 지난 28일 서울캠퍼스를 방문, 본과 4학년의 경주병원 임상실습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번 상경투쟁은 한약분쟁으로 집단유급한 96학번이 97학번과 같이 임상실습을 실시함에 따라 강남·분당병원에서 수용하는 데 무리가 있어 경주한방병원 임상실습이 결정돼 촉발된 것이다.

염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총학생회 해오름식 오는 10일

새내기 백일장 대회 등 우승자 시상

제34대 총학생회 해오름식이 오는 10일 오후 1시 팔정도 주변에서 열린다.

이번 해오름식에서 총학생회는 학자투 주간을 맞아 진행한 새내기 백일장 대회와 만우절 학자뺑기 대회, 새내기 농구대회 우승자를 발표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본관 앞에서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항의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단과대학총학생회 해오름식은 △불교대=오는 12일 오후 6시 두리터 △경영대=오는 4일 오후 6시 통일광장 △생자대=오늘(1일) 오후 6시 혜화관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는 5일부터 3일간 건물 출입 전면통제

중앙도서관 1층 제1열람실을 제외한 학내 각 건물 출입이 오는 5일부터 3일간 전면 통제된다.

건물통제는 중앙도서관 신축과 각 건물 에어컨 설치를 위한 전기 용량 증설공사에 따른 정전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보안·경비시스템 가동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사범대 교직과 설치 요구

교학과 업무 '포화' 상태

직원 증원 ... 전담부서 설치 검토 필요

사범대 학생회가 교직관련 행정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교직전담부서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학교측은 지난달 28일 사범대 교학과에 직원 1명을 증원, 교직업무를 전담케 했다. 하지만 "요구가 일부 반영되기는 했지만 교직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마련되지 않은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직전담 부서 설치에 몇 년 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다. 사범대 교학과는 일반 교학행정 업무뿐 아니라 사범대 학생, 교직 복수·부전공 학생, 교육대학원생 관리 등 교원양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현직 중등교사의 부전공 연수 관련 업무, 평생교육사를 양성하는 업무도 병행해 왔다.

하지만 방대한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교직 관련 업무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해 김영진 사범대 교학과장은 "상담을 문의해 오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 일일이 상대하기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사범대 학생을 비롯, 교직 복수·부전공 학생들이

입는 피해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교생실습 학교를 학생이 직접 찾아 다녀야 하는 점이다. 또한 교직과정 이수 요건이 바뀌어도 공고나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오선일 학생회장은 "본교의 현장교육실습 지원은 타대학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양대의 경우 사범대 전체 학생 수는 본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행정은 교학과와 교직과로 분리되었고, 직원 수는 모두 10명으로 본교의 3배 이상 배치돼 있다. 때문에 체계적으로 업무를 분담해 학생들에게 교직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사범대는 올해 임용고사에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133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예비교사들을 위한 행정이나 지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당국은 직원 증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직과 설치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회전무대

남녀유별

○... '금남의 집'에 남학생 출현이 찾아 풀치라는데.

계산관 안에 여학생 휴게실과 같은 층에 자리 잡은 소비자 상담실이 가정교육과와 소비자학 연계전공 실습실로 쓰여 소속 남학생들이 통행하기 때문이라고.

소파에 누워 휴식을 취하던 여학생들은 휴게실 통로로 오가는 남학생들 때문에 놀라는 일이 잦다고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초대받지 않은 손님, 그대 이름은 남자여!"

후()광판

○...회화문으로 출입하는 차량은 학교를 나갈때 비로소 차량 주의사항을 알 수 있다는데.

이유인즉 교내 차량에 대한 안내전광판을 출구방향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광판을 보지 못한 채 들어오는 운전자들은 서행, 주차 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운전을 하기 일쑤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인구 1만2천의 도시, 어이 없는 전광판이 언더(!)"

나만의 배려

○...주차란 차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설치한 고임목이 사라지고 있다는데.

알아보니 운전자가 고임목을 사용한 후 보관함에 넣어 놓지 않고 바닥에 방치해 놓기 때문이라고.

뒤이어 주차하려는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고임목을 치워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분실되는 고임목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누굴까? 남을 위해 고임목을 두고 간 사람들..."

검은 그림자

○...사물함 신규배정 기간 중 야간강좌 총학생회실에는 정체불명의 검은 비닐봉지들이 늘어서 있었다는데.

지난 학기 사물함을 사용하던 학생들에게 폐기 처리 경고를 했음에도 개인물품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는 학생회가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 개인물품이라 학생회실만 좁아지게 하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야총 학생회실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

보궐선거로 2개 단대학생회 건설

문과대 등 3개 단과대 대의원장 선출

지난 26일부터 3일간 치러진 단과대 학생회 보궐선거로 법과대와 이과대 학생회가 새로 건설됐다. 공대는 투표율(29.8%)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선거가 무산됐다.

단과대 대의원장에는 △문과대=박병걸(사4) △이과대=김종대(화4) △예술대=박근덕(불교미술4)이 선출됐다.

선출된 학생회 선거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과대

김문진(법4)·노시운(법2) 조가 74.73%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93.4%, 반대 6.3%로 정·부학생회장에 당선.

이과대

김규배(물리4)·성준제(반도체4)

조가 53.53%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86.18%, 반대 12.60%, 무효 1.22%로 정·부학생회장에 당선.

북한학과 금강산 M.T 경비 개인당 20여만원

북한학과가 정부의 금강산 관광 지원 방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2박 3일간 금강산으로 M.T를 떠난다.

이번 M.T는 북한학과 학생뿐 아니라 본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경비는 정부지원금에 현대아산 지원이 추가돼 개인 당 20여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이순준(북한3) 학생회장은 "앞으로 정부지원이 계속된다면 금강산 M.T를 연례행사로 치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33회 4. 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 안내

4. 19혁명 42주년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참 뜻을 되새기고,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제33회 4. 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모든 동국가족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행사명 : 제33회 4.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

2. 일 시 : 2002. 4. 12(금), 08:30~17:30

3. 장 소 : 북한산 (집결장소 : 4.19 국립묘지)
 * 등산경로 : 4.19기념탑(개회식) → 백련사매표소 → 대동문 → 보국문 → 중성문 → 대서문 → 북한산성매표소 → 한산성매표소 앞 주차장(시상식 및 폐회식)
 * 등산로에 표식 리본을 설치하였으니 산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행코스 곳곳에 산행지원팀(빨간모자) 및 의료지원팀(하얀모자 착용)이 있으니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교통편
 가. 시내버스 : 6번, 6-1번, 16-1번, 8번, 8-1번, 23번, 28번, 333번(4.19 국립묘지 입구에서 하차, 도보 10분)
 27번, 127번(우회함) : 4.19 국립묘지 앞에서 하차(도보 3분)
 나. 지하철 : 4호선 수유전철역(마을버스 및 학교(셔틀)버스 이용)
 다. 셔틀버스 3대 운행 : 4호선 수유전철역 5번출구 → 4·19 국립묘지 입구 (운행시간 : 07:40 ~ 10:00까지)

5. 참가대상 : 교·직원, 학생, 동문, 법인 등 모든 동국가족

6. 행사내용 : 4. 19 기념 추모식, 등산대회 및 시상식

7. 팀 구성
 가. 4인 1조팀 : 학(부)과, 동아리, 동문회, 대학원, 교직원 등 자유롭게 구성
 나. 학과 단체팀 : 5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교수 2인이상 참가
 다. 동아리 단체팀 : 30명 이상으로 구성, 지도교수 참가시 가산점
 라. 행정부서 단체팀 : 행정부서 단위로 구성(기획인사처, 대외협력처, 교무처, 연구처, 사무처, 정보관리실, 중앙도서관)
 * 상기의 교직원 단체팀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부서는 4인1조로 팀을 구성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단과대학 교학과, 대학원 교학부, 박물관 등)

8. 시상
 가. 4인 1조팀 : 총12팀 시상 - 최우수상 1팀,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 자연보호상 5팀
 나. 학과단체팀 : 금상 1팀(₩1,000,000), 은상 2팀(각 ₩500,000), 동상 3팀(각₩300,000)
 다. 동아리단체팀 : 2팀 각 ₩300,000
 라. 교직원단체팀 : 금상 1팀(₩500,000), 은상 2팀(각 ₩300,000)
 마. 장기자랑상 : 10팀(4인1팀 기준) - 시상식 장기자랑에 참여한 모든 동국인
 바. 행운상 : 참가 학생 중 행운권 추첨을 통하여 하계방학 기간 중 실시되는 '21C 지도자 연수' 참가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사. 단과대학 특별상 : 단과대학 소속 교수 전원이 참여하는 단과대학에는 특별 상금 1백만원을 지급합니다.

9. 접수기간 : 2002. 3. 25(월) ~ 4. 10(수) 09:00 ~ 17:00

10. 접수처
 가. 학과단체팀 : 각 단과대학 교학과
 나. 4인 1조팀, 동아리단체팀 : 학생회 학생복지실(본관 3층)

11. 유의사항
 가. 접수기간내 접수한 팀에 한하여 시상 및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나. 시상식(폐회식) 행사에 참가하지 않은 팀은 시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학과단체팀 및 동아리단체팀은 반드시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양식은 각 단과대학 교학과나 학생복지실에서 배부)
 라. 학과단체팀은 행사당일 행렬의 선두와 후미에 세울 깃발 2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 우천시에도 대회는 진행됩니다.(우산 또는 우의는 개별 준비)
 바. 도시락은 각자 준비하셔야 합니다.(쓰레기 봉투도 필히 준비)
 사. 등산대회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실(☎ 2260-30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행운상 추첨을 위한 행운권은 행사당일 출발 전 대회본부에서 배부합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학 생 처

사설 교육시장화, 신중 기하길

해마다 봄이면 어김없이 등록금 인상폭을 사이에 둔 학교측과 학생측의 대립을 학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상대는 지난 20일 학생 1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와 소, 쌀, 호박 등을 등록금으로 납부하는 현물납부 투쟁을 벌였으며, 서울산업대는 '대학본부 장례식'을 거행했다.

또한 명지대는 9.5% 인상에 반발해 서울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이 총장 집기를 빼앗았고, 수원캠퍼스는 총장실을 비롯한 주요부처를 폐쇄했다. 이렇듯 대립의 양상은 현물 납부, 접거 농성, 단식 농성 등 비폭력 형태는 다르다 해도 학원자주화투쟁이라는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올해 전국 대학 평균 6.4%의 인상은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각 대학별 등록금 투쟁에 참가한 학

생들도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국립대에도 등록금 자율화가 적용돼,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불멘소리로 나올 법하다. 국립대 등록금 인상이 곧 사립대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종료 공원에 모인 4천 여명의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저지, 교육재정 확충, 교육 시장화 정책 전면 철회'를 한 목소리로 높이 외쳤다. 교육의 시장화 정책이 가져올 폐해를 우려한 탓이다.

정부는 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방침 이후, 사립대 등록금이 10년 사이 3배로 경증 뛰어 버린 것은 어느새 잊어버린 듯 하다.

또한 IMF를 지나면서 축소된 교육재정을 그나마도 일부 대학으로 집중시켜 대학간 서열화를 조장했다. 더군다나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공약사항이었던 교육재정 6%확충은 간 데 없는 상황에서 교육의 공적 기능을 무시한 채 가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근시안적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국내 대학의 열악한 재정구조 속에서 교육의 시장화는 곧 교육의 '사장화'를 의미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다.

예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대학 교육은 공공의 업무이며 따라서 정부의 책임이 그 어떤 구성원보다 큰 몫을 차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학이 마치 이윤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업체인양 간주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다시금 되풀이하지 말고 무조건적인 시장화 정책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수 사외이사 겸직 논란

교수의 활동영역, 어디까지인가

기업·대학 모두의 이득 Vs 위법행위, 팽팽히 맞서

'사외이사'가 교수 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달 17일, 이기춘 서울대 총장이 지난 5년간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겸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활동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총장은 사외이사를 사퇴했지만 논쟁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8년 대주주의 일방적인 회사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체는 지난해부터 사외이사를 선임했으나 이들 중 약 20% 가량이 대학 교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1항은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교육공무원인

교수가 겸직을 하는 것은 실질법상 위법 행위이다. 이는 비단 국·공립대학의 교수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립대 교수도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를 두고 교수사회는 찬반양론으로 맞서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SLM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는 본교의 한 교수는 "교수를 제외하면 중립적 입장에서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할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교수 자신의 연구나 강의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도 찬성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민호(경영4)군은 "학과 특성상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직접 경험한

* 2001년 10월 현재 사외이사(전국 687개회사 1천435명)의 분업

전문경영인	대학교수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연구위원	기타·무직
358명 (24.9%)	277명 (19.3%)	229명 (16%)	40명 (2.8%)	531명 (37%)

자료제공 : 증권거래소

교수님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반대론자들의 주된 논리는 교수가 학외의 일을 맡게 될 경우 수업 등 교수의 본업에 소홀해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려대 이필상(경영학) 교수는 "사외이사 활동으로 인해 연구와 교육이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사외이사는 실질법을 어기는 것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안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교수들도 있다.

본교 정연주(법학)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항목 중 '영리추구'에 대한 부분은 추상적이며 현행법으로는 위법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사외이사를 영리추구를 위한 직책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자 교육부는 지난 2000년 대학교수의 겸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현재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는 전국 277명의 교수들은 겸임 목적에 상관없이 '범법자'가 된 상태이다.

사외이사 겸직 교수 논란은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에 따라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관련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발생했다. 교수와 학생, 기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지만 실질법 상으로 위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고 있는 논란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논단

강동진 민중의료연맹 대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어 의료계 안팎이 떠들썩하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전후로 사상 초유의 의과파업을 겪은 데 뒤이어 2001년에는 건강보험재정이 '부도'를 내 2006년까지 한 시적으로 '법정 관리'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또한 앞선 데 달친 격으로 지난해 11월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의제(DDA)에 의해 의료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하는 압력에 처해 있다. 그에 따라 위기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보건의료영역이 시장에 활짝 열려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거의 없다. 보건의료시장에서 민간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취약으로 비보험진료의 확대 등 의료시장의 잠재 수요가 매우 커서 외국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유인 요인을 가지고 있지만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불허' '전국민 건강보험제도하에서의 저보험수가정책' 등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거나 저해하는 법적 장벽이나 규제가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2004년말까지 협상을 완료하여 2005년 1월에 공표하기로 되어 있는 DDA에 의한 의료시장개방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되리라 예상되는 내용은 의료법 30조에 규정되어 있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불허 조항과 국민건강보험법 40조

의료시장 개방과 국민건강논단-

차지하는 부분이 90%에 육박하며 의료비용지출도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되는 비율이 50~60%를 뛰어넘는다. 자본주의의 최첨단이라 하는 미국 보건의료에서 공공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보면 보건의료에서 '시장의 힘'은 엄청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건강보험 시장은 개방되어 있어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앞다투어 '암보험' 등의 건강보험 상품을 연일 쏟아내기에 바쁘다. 1995년에 '외자도입법' 및 '외국인 투자자간 지침'에 따라 당시까지 의료시장을 투자제한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던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외국계의 의료기관도 우리나라에 자신의 병원을 설립할 장애가 없어져 버린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경쟁력의 제고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의료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하고 있으며 심지어 의료시장개방이 예정됨에 따라 민간의료보합을 조기에 도입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도 내놓고 있다.

이쯤에서 보면 의료시장개방 유무나, 아니면 그것의 범위가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노릴수가 있지 않을까 의심해 볼 만하다. 여기에서 1999년 외교통상부 보고서는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소득 및 노인인구의 증가, 고급의료 수요 잠재, 행위별 수가제,

에 규정되어 있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조항(의료기관은 설립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제도에 편입된다는 규정)이다. 요양기관 당연지정 조항은 벌써 위헌심판소송에 걸려 있어 오는 4월 판결을 앞두고 있다. 만약 여기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올 경우 그 효과는 연쇄도미노 현상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각종 법·제도적 규제와 장벽이 없어질 것이다. 그야말로 아무런 걸림돌 없이 의료부문에 '자본'이 활개 칠 토양이 마련되는 것이다.

WTO가 추구하는 것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철폐하는 것'이라는 말을 새삼 떠올리는 것도 그 이유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위기는 '시장의 부족과 효율성 저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과잉'에서 오는 위기이다. 다시 그 위기를 '시장을 향해 문을 활짝 여는 것'으로 돌파하고자 할 때 그 앞에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려는 국민의 권리가 짓밟히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놓여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시장개방에 대한 대응은 무엇보다 이러한 '시장의 과잉'을 교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환상이며, 그것은 단지 자본과 '기진 자'의 권리일 뿐이다.

사외이사란 ...

△ 의미
회사의 경영을 직접 맡아보는 이사 이외에 회사 밖의 전문가로 선출된 이사. 각 상회사들은 증권거래법상 일정 수의 사외이사를 선출해야 함에 따라 다른 기업체 임직원 출신이나 교수 등을 사외이사로 임명하고 있다.

△ 역할
사외이사는 회사의 임원이 아닌 주주로부터 권한을 받은 이사이며 회사의 최고경영자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일을 한다.

하지만 매일 출근해 일을 하지는 않으며 이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회의에 출석하여 이사회 제출의안에 대한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일을 한다.

또한 이들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감시 기능도 수행한다.

△ 목적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 독단의 횡포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예전부터 사외이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일본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외부감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임희정 texaswind@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김호성
부주간 장영길
편집국장 류병성
편집장 손상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p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이메일 ID dgpu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658 팩스 (054)770-2657

황룡사, 불국사, 팔만대장경...

그리고 불교종합병원!



동국대학교 의대·한의대 불교종합병원 마침내, 오는 5월 준공! 12월 개원합니다!

황룡사, 불국사, 팔만대장경...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구국의 대작불사가 있었습니다.
21세기 대혼돈 속에서 모든 인류가 신음하는 지금,
중생구제의 빛을 밝히는 대역사의 결실이 마침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불자들의 땀과 염원이 쌓이고 쌓여 탄생하는
동국대학교 의대·한의대 불교종합병원!
고통에 시달리는 중생을 구원하여 불국정토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1세기 최첨단 양·한방협진 전문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소재
- 연면적 27,000평, 지하 2층, 지상 12층
- 감복 최대 1,000병상
- 성인병·노인병 전문 클리닉
- 첨단시설, 정보화 시스템
-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선(禪)센터
- 대기시간이 가장 짧은 병원
- 보호자 없는 병원



■ 불교종합병원권립기금등참안내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 (02)2260-3300/ARS : 060-7000-119

최근 '박근혜를 찍는 게 진보'라는 페미니스트 최보은 씨의 글(말지 3월호)을 두고 여성계의 논쟁이 한창이다. 여성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지만 여성의 시각으로 선거를 바라보았다는 점은 그간 '미녀 속 미녀'로 존재해 온 여성운동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사는 여성운동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여성문제 동아리 회원, 일반 학생 등을 초청해 지난 28일 본사 회의실에서 현재 대학사회의 여성과 대학 내 여성운동을 평가하는 대담을 마련했다. '페미니스트 아줌마' 최보은 씨가 남성중심의 선거판에 여성주의적 화두를 던졌다면 이 대담은 남성중심의 대학사회를 소외된 여성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리이다.

'박근혜 지지논란'에 대하여

박문지는 부총학생회장(이하 박)=최보은 씨의 이른바 '박근혜 발언'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있는 여성정치인이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박근혜 의원이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진완 총학생회장(이하 주)=여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여성이면서도 더 남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 BK 연구원(이하 양)=최보은 씨가 과연 박근혜 의원을 진보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거. 최보은 씨의 발언이 의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박근혜 의원을 "이 사람 여성 정치인이었지"하며 다시 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발언을 "우리한테 잘 보여, 그러면 표 찍어 줄 수 있어"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려하는 것처럼 박근혜 의원이 여성의 입장을 잘 대변해 줄 것으로 예상하기 힘들다.

박=학내에서 아직까지 여성 총학생회 후보가 나오지 않아 이러한 논쟁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



이재욱 (여성문제동아리 셋바람 회원) 주진완 (서울캠 총학생회장)

학내 여성운동의 현실은

셋바람 이재욱 회원(이하 이)=대학 내 여성운동을 살펴볼 때, 총학생회와 총학생회가 왜 분리되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박=총학생회가 그동안 여성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행사가 남아 있는 것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회 내에서 여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총학생회는 필요 없을 것이다.

주=현실적으로 총학생회의 역할이 많이 부족해 장

은 아닌데 얘기다. 사회의 근본 모순을 미리 정하고 중심운동과 부운운동을 나누는 것은 운동권 안에서의 권력관계를 보이지 않게 만든다
이=총학생회는 여성문제를 부운운동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학생회 여성집행부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페미니스트적인 생각을 갖고 그러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집행부가 있는지.
주=페미니스트적 관점을 가진 여학생이 있기도 했지만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회 내 여성도 각자의 역할에 맞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양=역할분담론은 예전부터 익숙하게 들던 말이



양현아 (서울대 법학 BK 연구원) 박문지는 (서울캠 부총학생회장) 김민희 (사범대 가교2)

남성중심의 대학, 그곳에 '진짜' 여성은 없었다



김진경 기자

애인, 여성 문제 등을 모두 잘 이끌어가기 힘들게 사실이다. 때문에 총학생회를 비롯한 여러 모임이 총학생회의 부족한 부분을 잘 메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많이 다변화됐지만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학생회의 주된 역할은 사회변혁을 위한 것이었고 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그러다보니 여성운동을 비롯한 다른 운동들의 발전이 늦어진 것 같다.

이=운동은 모두 중요하고 같은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는데 이를 중요성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주=순서를 정한 것이 아니다. 불평등의 근본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은 노동가치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이나 여성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남자들에 비해 노동가치가 떨어져 차별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양=성차별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존재해 왔다. 여성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여성 지위가 낮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가 여성불평등의 근본모순

다. 능력별로 역할분담을 한다면 왜 그것이 그토록 성별로 구분되는 것일까. 역할분담이 성별 문제가 아니라면 이미 남녀가 평등한 사회가 됐어야 한다. 여성 국회의원이 3~4%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역할분담이라 부를 수 있는가. 총학생회에도 여성 간부의 비율이 매우 낮다면 차별이라 볼 수 있다.
주=총·부총학생회장은 남성이지만 현재 총학생회에는 여자 집행부가 더 많다. 또한 여성 집행부들이 정책도 더 많이 내고 있다.
양=반가운 일이지만 교회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 교회를 보면 여성신도가 7.80%이며 활동도 여성이 더 많다. 하지만 재정관리나 설교 같은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남성들이 전담한다. 수가 많다는 것

과 조직을 대표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가라앉은 학내 성추행 사건

김민희 (사범대 가교2·이하 김)=본교에서 운동권 성추행 사건이 매우 늦게 공론화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그런 말을 공론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양=사건이 생긴다고 곧바로 공론화 되는 것은 아니다. 성추행 사건 자체는 항상 있어 왔다. 이를 문제로 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될 때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다.
박=성추행 사건이 공론화 되기 시작했을 때 학생들 반응이 별로 없었다는 게 매우 의외였다. 아무래

도 방학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사건을 공론화 시키는 것이 피해자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김=가해자 인권 문제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박=성추행 사건 해결은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우선 생각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들리지 않는 여교수의 목소리

박=본교에서 일어난 또 다른 대표적인 성폭력 사건으로 K교수 사건 얘기를 해보자. 평소 성문제에 대해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여교수가 수업시간에 K교수를 적극 옹호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놀랐다. 이밖에도 몇몇 여교수가 K교수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는 여교수가 여성이라는 위치보다 교수라는 지위에서 자신을 규정했기 때문인 것 같다.

양=맞는 말이다. 앞에서 '여성의 남성화'란 말이 신선했는데 이 사회에서는 여성이 여성화되는 것이 더 힘든 일이라 생각한다. 남성이 대다수인 교수사회도 마찬가지로 이다. 남성 중심적이다 보니 스스로 여성으로서의 의식을 갖추지 못한 교수들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여교수의 숫자부터 늘려야 한다. 아무리 여성주의적인 발언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도 잠정적인 지지층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다행히 최근 여교수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립대 여교수 할당제가 추진되고 있다. 학부, 대학원에서도 여성 성비가 늘어나고 있으나 여교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학생들도 직접 요구를 해야 한다. 우리 과에 여자가 70%인데 왜 여교수는 찾아볼 수 없느냐는 식으로 말이다.

정리=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대담 참가자

양현아(서울대 법학 BK 연구원), 주진완(서울캠 총학생회장), 박문지는(서울캠 부총학생회장), 이재욱(여성문제동아리 셋바람 회원), 김민희(사범대 가교2)

동약로 익숙한 풍경



"우리는 이런 학생회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과대 보결 선거 1주일 전, 학교 홈페이지 '나의 주장' 게시판에는 놀라운 글이 올라왔다. 공대의 몇몇 2001년 학과 학생회장들이 총대의원과 공대에서 일해 온 정후보자에 대해 비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조회수는 곧 급등했고 여러 개의 글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오늘 6시 공운위(공과대운영위원회)자리로 오세요. 직접 해명하겠습니다."
이에 정후보자는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게 해명자

리에 참석해 함께 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들 중 한 명만이 참석했다. 공운위가 끝난 뒤 정후보자가 사건해명의 글을 올린 후에도 의혹을 제기한 이들과의 구체적인 사건해결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불길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 불고 있었다.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나겠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퇴해야지"

해명사실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실종된 채 비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는 책임자들이 해명자리에 모여 공개적인 해결과정을 논의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대목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사태가 학생회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보결선거에서 다른 단과대가 모두 투표율 50%를 넘긴 것에 비해 공대는 유난히 낮은 투표율(29%)을 기록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패를 갈라 싸우는 모습을 학교 학생회에서까지 보는 건 정말 싫다"
사태를 지켜본 어느 학생이 공대학생회에게 던지는 말이다. 공개적인 절차보다는 인신공격이나 비방에 치중하는 등 보결선거를 치른 지난 2주간 공대 모습은 분명 기성 정치관, 기성사회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심지어 고개를 돌리는 유권자의 모습까지 말이다.
송운경 기자 itsU@dongguk.edu

교내 단전·단수 안내

중앙도서관 신관 신축 및 각 건물 에어컨 증설을 위한 전기용량 증설공사로 다음과 같이 단전, 단수를 시행하여 교내 전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02. 4. 5(금) - 2002. 4. 7(일)
2. 대 상 : 학교 전체 건물
3. 협조사항

- 가. 도서관은 1층 제1열람실만 개방합니다.
- 나. 전 건물 출입을 통제합니다 (중앙도서관 제1열람실 제외)
- 다. 각 사무실 및 연구실, 실험실습실의 도난방지를 위해 사전 문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각 실험실습실의 수도 및 전기시설을 확인하여 전기, 수도의 재공급 시 기계파손 및 침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캠 총무처

경영대학 학생총회·해오름식

1. 일 시 : 4월4일 오후 5시30분
2. 장 소 : 통일광장
3. 안 건 : 경영대학학생회칙 개정
경영대학 학원지주와 투쟁 요구안 확정

서울캠 34대 경영대학 학생회

'03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1. 모집인원 : 000명
2. 지원자격
 - ① 2년안으로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자
 - ② '05. 3. 1 기준 만 20세 ~ 27세까지의 남자
 - ③ 군 인사법 제10조 장교임용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02. 3. 11 ~ 5. 11
4. 구비서류
 - ① 지원서(양식 배부) 1부
 - ②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 등본/초본 각 1부
 - ③ 수능/대학 1학년 성적 증명서(열람용) 각 1부
 - ④ 천연색 사진(4x5cm) 4매
 - ⑤ 신원진술서 1부
 - ⑥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⑦ 면접관련서류(양식 배부) 각 1부
 - ⑧ 국가유공/장기근속자제, 특기/국위선양자 확인서 1부(해당자)
5. 선발 방법 / 일정

구분	방 법	일 정
1 차	서류 전형, 체력검정 신체 검사, 면접 평가	'02. 5. 13 ~ 6. 1
2 차	종합 검 증 인성 검사, 신원 조회	'02. 6. 3 ~ 11. 9

6. 최종 합격자 발표 : '02. 11. 16
7. 특 전
 - ① 대학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
 - ② 국내의 민간 대학원 국비 취학가능(장기 지원자)
 - ③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장기 지원자)
 - ④ 군 복무기간중 복직 혜택
 - 군인 및 군인가족 의료보험 혜택
 - 결혼시 군관사입주, 휴가/출장시 휴양시설 이용, 대학원 진학시 교육비 지원
 - ⑤ 전역시 일반 기업체 취업 알선
8.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 ☎ 02-2260 - 8537

서울캠 제112학생군사교육단

'02 전반기 군 장학생 모집

1. 모집인원 : 1학년(000명), 2학년(000명)

1 학년		2 학년	
79. 10. 1 ~	'86. 9. 31 출생자	78. 10. 1 ~	'85. 9. 31 출생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02. 3. 11 ~ 4. 6
4. 구비서류
 - ① 지원서(사전첨부) 및 서약서 각 1부
 - ② 대입 수능고사 / 대학성적증명서 각 1부
 - ③ 호적 등본 및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 ④ 주민등록초본 1부
 - ⑤ 재정보증 관계서류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⑥ 국가유공/공무원 장기근속 자제(20년 이상) 특기/국위선양자/무도2단이상자 확인서 1부 제출(해당자)
 - ⑦ 천연색사진(4x5) 3매
 - ⑧ 복무연장 지원서 1부
 - ⑨ 고교 생활기록부 1부
5. 선발 방법 / 일정

구분	방 법	일 정
1 차	서류 전형, 체력검정 신체 검사, 면접 평가	'02. 4. 8 ~ 4. 27
2 차	종합 검 증 인성 검사, 신원 조회	'02. 4. 29 ~ 7. 27

6. 최종 합격자 발표 : '02. 8. 2
7. 특 전
 - ① 학군 후보생 선발시 우대 (지원시 "갑"접 부여)
 - ② 대학 졸업시까지 등록금 및 수확보조비 지급(연2회 등록금 심비 전액 지급)
 - ③ 임관 / 입대시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 보직 활용
 - ④ 예비군 지휘관, 군무원 채용
 - ⑤ 국내의 민간대학원 석·박사 취탁기회 부여(장기 복무시)
 - ⑥ 기혼자 군속소 지원
 - ⑦ 전국 유명호텔 및 콘도 이용 : 휴가, 출장시 이용가능
 - ⑧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 (대기업체 채용 우대)
8.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 ☎ 02-2260 - 8537

서울캠 제112학생군사교육단

황사피해 최소화 위한 대책 필요

생태계 복원사업과 한·중·일 삼국의 공동연구 이뤄져야

지난달 21일 전국은 강한 황사 현상으로 하늘은 완전히 잿빛 모래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이였다.

이번 우리나라를 뒤덮은 황사는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심한 것으로 이 황사에는 석영, 장석, 운모, 석고, 방해석 등과 같은 다양한 미세 입자가 들어 있으며, 중국의 공업지대에서 분출되는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 공해 물질도 함께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사에 의한 피해로는 대기 및 토양오염, 눈과 호흡기 질환, 그리고 반도체와 같은 정밀 부품 생산의 저해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황사 현상이 근래에 들어서 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가? 최근의 기상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99년에 6일 정도에 불과했던 서울의 황사발생 일수는 2000년에 10일, 2001년에는 27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이렇게 황사가 급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로 고비사막 지대 그리고 중국의 사막 건조지대에서 강한 저기압의 통과 횡수가 예전보다 더 증가했다. 또한, 이 지대에서 이전보다 더 심한 고온, 건조화 현상으로 가뭄이 지속되어 황사 입자들이 쉽게 하늘로 날려 올라 갈 수 있는 기호조건이 형성됐다.

셋째는 중국 북서부 및 몽고 일부지역의 경우, 이전에는 초원이었던 지역이 과도한 경작과 양떼와 같은 가축의 방목 등으로 모래토양으로 바뀌는 사막화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황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원인을 제거하거나 또는 억제시키면 될 것이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첫째와 둘째 원인의 경우는 자연 현상이므로 인간의 힘으로 다스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셋째의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원인을 제거하거나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세 번째 경우와 관련된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몽고 및 중국 북서부 지역에서 파괴된 생태계의 복원 및 조립 사업과 현지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물적, 인적 지원을 함으로써 사막화의 진행속도를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월드워치연구소 레스터 브라운 박사가 제안한 내용인, "사막주변에 거대한 풍력 발전 단지를 세우면 바람의 속도를 줄여 토양 침식을 막을 수 있고, 또한 풍차가 전기를 생산하면 땅갈을 얻기 위하여 숲을 벌목하는 일을 막을 수 있

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둘째, 황사 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위하여 황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한·중·일 삼국의 공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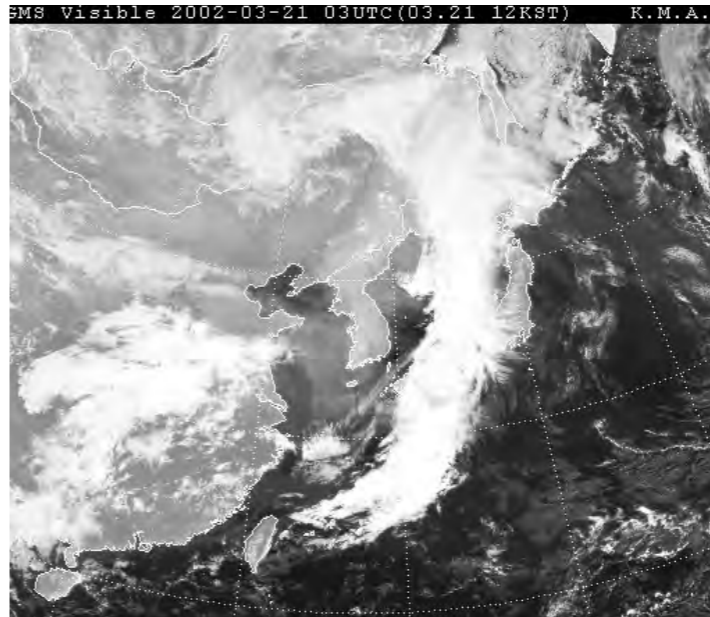
또한 황사와 관련하여 대기 오염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와, 황사예보를 하는 과학기술부(기상청)는 황사 문제에 대하여 업무 성격상 서로 다른 각도에서 황사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이제는 관련 부서가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국의 주요 지역에 설치된 '부유분진 농도측정기(TSP)'로 대기 중에 떠 있는 먼지의 농도를 측정하여 황사의 농도를 계산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황사 현상이 인체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련 기관(환경부와 보건복지부)의 공

동 연구를 통해 단계별 기준 등을 설정해 놓아, 그 기준에 따른 학교 휴업 또는 야외활동 억제 등의 조치를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재규 강릉대 자연과학부 대기환경과학 교수



황사가 나타난 지난달 21일 12시경의 가시성자료



정승현교수의 한의학 이야기 (2)

두근거림과 숨참

'두근거림'은 밤이나 낮에 이렇다할 것이 없는 데도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맥이 문란해지는 경우 등이다.

또한 '숨참'은 '하야'하고 한숨을 내 쉬거나 도중에 한번 쉬지 않으면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고 먼 거리를 걷지 못하며, 아무 것도 없는 가슴 중간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느낌 등이다.

두근거림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한방 병리의 개념으로 기허 혹은 기억 등의 '기(氣)'의 이상과 수독·수체라고 말하는 '수(水)'의 이상을 합병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힘(vital energy)을 뜻한다. 사람이 기가 쇠약해지게 되면 쉽게 놀라거나 신경질이 잘 나게 된다.

보통 사람은 심장의 고통을 못 느끼지만 기허인 사람은 심장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가 격정이 안 되는 듯이 말하자라도 이 기허의 상태는 치료의 대상이 된다.

또 기억은 기가 역류하는 것으로, '배꼽 주위로 부터 기분 나쁜 느낌이 치밀어 올라 두근두근한 느낌이 든다'는 증상이다.

혹은 '냉감·역상'이라고도 하며, '얼굴은 화끈거리면서 발은 차가워진다'라는 것도 기억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이러한 사람도 두근거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기가 순환하지 않으면 '혈(血)'도 '수'도 순환하지 않으므로 '수'가 정체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숨참을 호소하는 사람은 '기울'인 사람이 많다. 기울은 기의 순환에 정체를 초래한 경우로 가슴이 막히는 느낌이나 억울한 경향,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는 등의 상태를 말한다.

두근거림이나 숨참의 원인에는 심장이나 폐 등의 명확한 이상이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우선 검사를 받고 다른 병이나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이 분명해지면 그것에 대한 양방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한방치료의 대상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원인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나, 검사 결과 괜찮다고 해도 본인은 건강하지 않다고 느껴지게 되는 환자이다.

심장 근처에 불쾌감이 있고 두근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아무 것도 없는 흉과 안으로 숨이 들어가지 않는 듯 함을 호소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호소 증상과 심전도의 이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두근거림·숨참의 치료에 사용되는 양약에는 정신안정제나 항부정맥제, 기관지확장제 혹은 디기탈리스를 비롯한 강심제 등이 있지만, 이들을 한방약과 병용할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21세기 지식인 사전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현대의 가장 저명한 기호학자이자 동시에 뛰어난 철학자·미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71) 교수. 현재 볼로냐대학 기호학 교수로 재직중인 그는 1932년 이탈리아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 1954년 토리노대학교 문학부를 졸업했으며,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학적 문제'라는 철학 학위논문을 발표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후 에코 교수는 '열린 작품 Opera aperta'를 발간해 현대 미학의 새로운 해석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제임스 조이스의 시학, 예술의 정의 등 새로운 이론서를 발표해 문화비평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에코 교수가 세계적인 '슈퍼스타 교수'가 된 것은 추리소설 '장미의 이름' 덕분이었다. 이 작품은 전 세계 40여 개 국에서 2천만 부가 팔리는 대기록을 세웠다.

기호학자로서 그는 현대 TV와 컴퓨터라는 미디어의 등장과 변질에 대한 예민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미디어 상황의 변화에 대해 엘리트주의적으로 초연하려고 하지 않으며 동시에 그것에 완전히 열광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비판적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는 그의 기호학이론은 오늘날 세계 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이론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고전문학사방법론 포럼

새로운 테마를 통해 역사 발견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지난달 20일부터 '한국고전문학사방법론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 민족 이야기로서의 신화의 체계(조현실) △ 두시와 대장경의 번역·동아시아 문화의 전파(정천구) △ '자연'에 대한 인식론-산수유기, 산수시(화), 강호 시기(이승수) △ 서유경문과 근대적 자아(류준필)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지난 20일에 열렸던 '민족 이야기'로서의 신화의 체계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민족 테마를 중심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단군신화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였다. 또 비평적이지 않은 민족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오는 10일에 열리는 두 번째 포럼은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유교와 불교를 조선에 전파한 두보의 시와 대장경의 번역의 영향력이 주제가 된다. 이 포럼에서 다루지는 두시와 대장경 중 두시는 유교의 충과 가족운리를 동아시아 근

체제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했으며, 이후 조선의 작가들이 두보에 관심을 갖게 했다. 또한 대장경은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조선인 상하층 전반에 문화의 기본적 인식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다음달 15일에 열리는 세 번째 포럼은 조선 중·후기 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늘어난 자연을 다룬 작품이 주제가 된다. 산수유기, 산수시, 강호시가 등을 통해 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또한 현재 생태문화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분석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9일에 열리는 '서유경문과 근대적 자아'는 한말의 정치가 유길준이 미국 유학 때 유럽을 순방하며 보고 느낀 것들을 기록한 최초 국·한문 혼용체 책을 통해 근대 계몽기 접합점에서 나타난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체계를 알아볼 예정이다.

학술부 imperial@dongguk.edu

학술단신

국제 바이오 엑스포

미래 핵심전략산업의 한 축으로 꼽고 있는 바이오 산업을 주제로 하는 엑스포가 올해부터 국내에서 개최된다.

오는 9월 청주에서 열리는 '오송 국제 바이오 엑스포'는 바이오 생명관, 의학관, 미래관, 학술관 등의 전시관을 설치, 바이오 산업 전 분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운영되며 다채로운 국제 학술대회도 열린다.

특히 바이오 대학관은 대학 내 생명공학과·유전공학과 등 바이오 관련학과와 학생들의 연구활동을 국내외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포츠과학학술대회

부산아시아게임 개최를 계기로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스포츠과학학술대회' 행사의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됐다.

'스포츠를 통한 아시아의 평화'를 주제로 열릴 학술대회는 대회 개최 직전인 오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해운대그랜드호텔 등지에서 국내외의 스포츠 관계자와 과학자, 문화, 예술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또한 학술대회와 함께 스포츠 관련 각종 문화전시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02 동국대 출판부 신간안내 Http://home.dgu.ac.kr/~book/index.html Tel. 2260-3483 Fax. 2268-7851

한국의 전통조경

우리나라의 조경을 살필 수 있는 궁궐, 주택, 별서, 사찰, 서원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을 선정. 문헌 고찰, 풍부한 도면과 사진을 통해 작품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수록.

홍광표·이상윤 공저 / 값 14,000원

儒門事親

금원사대가의 일가(一家)로서 한(汗)·토(吐)·하(下) 3법의 치료법을 주장한 장자화(張子和) 선생의 저술인 유문사친(儒門事親)의 번역서.

구병수·이동원 공역 / 값 25,000원

전자화폐

'전자상거래 보안 응용'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핵심이 되고 있는 전자화폐의 개념과 기술적인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송유진·주재훈 공저 / 값 12,000원

한국현대문학사

개화기문학으로부터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일제말기를 거쳐 1990년대 초까지 시, 소설, 비평을 중심으로 그 경향과 각 문학운동에 대한 고찰을 거쳐 한국현대문학사 전반을 다루고 있다.

김선학 저 / 값 14,000원

韓國佛教全書 第十三册

1996년 제12책이 간행된 이래, 5년 만에 후속 출간된 한국불교학연구의 正典!

유식학의 주요 논서인 유가사지론과 신라 도륜(道倫)의 註記(유가론기)를 함께 편집하여 실은 유가론기 회편본. 송장에 수록된 내용을 저본으로 하여 대장장에서 잘못 읽은 오탈자들을 대폭 바로잡았다.

한국불교전서편찬위원회 편 / 각 권 80,000원

나라 밖 세상, 대학 안 세계 속으로

근시안적 사고 버리고 '몸집 불리기' 식 국제화 지양해야

사회는 국제적 감각을 지닌 사람을 원한다. 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대학들은 오래전부터 세계로 눈을 돌리고 국제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그간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그 흐름을 따라 왔던 많은 대학들이 양적인 성장에 그쳤을 뿐 질적 변화를 꾀하지 못했다.

이에 본사 기획부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국제화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우리나라 대학들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몸집임을 찾아볼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강의시간표를 들추어보면 '영어강의'로 기재되어 있는 강의들이 눈에 띈다. 수업은 물론 과제물, 시험까지 모두 영어로 해야 하는 영어강의는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화 되어 가고 있는 대학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 주고 있다.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를 원하는 사회 속에서 대학들의 이 같은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영어는 기본'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영어권 나라로 유학 가고 있고 굳이 유학이 아니더라도 어학연수는 필수라는 의식이 학생들 속에서 자리잡고 있다. 영어 뿐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등 다른 외국어를 배우기 위한 학생들의 열기도 뜨겁다.

이에 따라 외국대학에서 금전적 지원을 해 주는 교환유학생 프로그램의 경우 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교환유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외국의 특성화된 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까지 습득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학 국제화는 학생 뿐 아니라 교수, 직원들에게까지 적용돼 다양한 교육방법을 서로 교환하고 외국대학의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국내 대학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국제화 경쟁에 뛰어들었고 현재 양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그간 갑작스럽게 닦쳐온 국제화 바람에 명확한 목표 없이 '남이 하나까 나도 해야한다' 식의 사고방식으로 몸집 불리기에 그친 대학들이 많다. 현재 대부분

의 대학들은 필요한 외국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기 보다 수 늘리기 집착해 '어떤' 대학이 아닌 '얼마나 많은' 대학과 협정을 맺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어학이 우선이라는 사회적인식으로 인해 미국, 영국, 일본, 중국으로 유학국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 시점에서 외국어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학은 우리나라에서는 배울 수 없는 외국대학의 우수한 교육을 받기 위한 것이다. 외국어 공부만을 강조해 세계 여러 나라의 특수한 학문이나 문화를 놓치고 있는 근시안적 시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보내기'에만 치중한 나머지 '받아들이기'를 등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유학적자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공부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본교의 경우에도 특성화된 교육인 불교학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 오는 학생은 전체 7, 8명 중 한, 두 명에 그치고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것을 더욱 발전시켜 외국학생들을 끌어 들여오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과제이다.

앞으로 대학 국제화의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한다.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자신도 모르는 잘못된 길을 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본교 국제화 프로그램 분석

동대 안 개구리, 세계로 폴짝!

본교는 지난 96년 연구처 내 국제교류팀을 창설, 본격적으로 해외대학과의 국제교류를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협정을 체결해 교류하고 있는 대학은 40여 개에 이르렀다. 자매대학 보유 순위만 본다면 국내 12위로 타대학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지만 대부분이 일본과 중국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일본 자매대학의 경우는 불교계 대학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류대학이 폭넓지 못하다. '수'는 많지만 '다양'하지는 않다는 말이다. 이는 자매대학과의 교환유학생 파견 현황을 봐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학교에서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있는 대학은 미국과 대만 각 1개 대학, 일본 5개 대학, 중국 4개 대학으로 전체 교류대학 13개국 40여 개 중 4개국 11개 대학에 불과하다.

또한 극소수의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파견된 교환유학생 수는 28명에 불과하며, 본교로 유치한 교환학생 수는 일본에서 8명, 대만에서 3명으로 역시 부진한 실정이다. 이는 1년에 300여명을 교환유학생으로 파견하고, 250여명을 유치하는 연세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다. 이에 대해 연세대 국제교류부서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국제화를 체감하게 되는 교환유학생 비율은 대학의 국제화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라며 보다 많은 기회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환유학생제도를 실시하는 데는 무엇보다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학습 여건 조성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본교의 경우 교환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은 커녕 가장 기본적인 기숙사조차 없는 상황이며, 유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행정인을 비롯해 본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제교류팀 관계자는 "기숙사가 없는 대신 하숙집을 마련해 주고, 올해부터는 생활 도우미를 모집하는 등 시설이나 제도의 미약함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담당하는 행정직원이 부족한 점도 본교의 국제화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다. 현재 국제교류팀 행정직원은 단 1명으로 11명, 8명을 보유하고 있는 연세대 중앙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적다.

국제교류팀 관계자는 "국제화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한 곳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며 인력 부족은 물론 타대학과 달리 학생상담센터, 언어연구교육원, 학생선발실 등으로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학교는 현재 국제교류팀을 국제교류센터로 분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올해부터 언어연구교육원 내에 한국어 학당이 마련돼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수강인원은 16명으로 이중 8명이 자매대학 교환유학생이다. 강좌내용은 어학 교육을 비롯해 다도, 서예 등 문화강좌도 함께 실시하고 있어 긍정적인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언어연구교육원 한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생활 프로그램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학기부터 신청 교수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영어강의 역시 국제화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다. 현재 영어강의를 시행하고 있는 수업은 18개 과목으로 450명이 수강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물론 교수조차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어강의가 얼마만큼의 학습효과를 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제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영어 강의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시행목적이 부합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타대학에서는 공동학위제, 인증제 등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발빠르게 앞서나가고 있다. 본교 역시 국제화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내실을 기하는 국제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타대학 국제화 모범사례

세계 향해 달리는 타대학 따라잡기

국제화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이 국내 대학국제화의 선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다면, 경북대, 조선대를 비롯한 지방대학들은 동아시아 유학생을 유치하려는 전략이 치열하다.

이에 대학 국제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학들을 살펴보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 몇 가지를 골라 비교 분석해 본다.

공동(복수)학위제도

그동안 실시된 교환학생제도를 심화시킨 것으로 지원자가 자매 대학의 학점을 인정받는데서 나아가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 대학에서 2년, 자매대학에서 2년을 보내는 2+2형태와 국내에서 1년 더 공부하는 3+1형태가 있으나 공동학위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대부분 2+2를 선택하고 있다.

현재 숙명여대, 고려대, 경희대가 2+2 형태로 공동학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메리칸 대학, 센트럴 코네티컷 대학 등에 각각 2명에서 6명 정도의 학생을 파견한 상태이다. 또한 연세대, 전남대, 강릉대 등을 비롯한 대다수 대학들도 미국, 중국, 호주 등에 위치한 해외대학들과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학위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간 협정체결만으로 공동학위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협정을 체결해 놓은 대학에 비해 학생을 파견하고 있는 대학이 훨씬 적은 것도 그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 국제교류부의 한 관계자는 "학위를 부여하는 제도가기 때문에 학교간에 깊은 신뢰를 쌓아야만 제대로 시행할 수 있다"며 학교차원의 지속적인 교류가 공동학위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조건임을 강조했다.

해외 인턴쉽 제도/행정연수년 제도

재학생을 해외로 파견해 외국기업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 인턴쉽 제도는 경북대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북대는 2000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해 협정이 체결된 약 50개 정도의 해외기업에 지금까지 220명 정도의 재학생을 보냈다. 선발된 학생은 한 학기동안 해외기업에서 인턴근무를 할 수 있으며 최대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외국기업근무경력을 쌓는 동시에 어학 실력까지 높일 수 있고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편이다.

한편, 교직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도 있다. 국내 대학 중 연세대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행정 연수년 제도는 교직원에게 해외 및 국내 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제인증인 ISO9000인증을 받아 행정의 국제화를 위한

대학은 있었지만 행정실무자들이 직접 국제감각을 익혀 행정에 응용할 수 있는 기회는 드물었기 때문에 교직원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실시한 연세대는 만 7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 중 한 학기에 두 명씩 선발해 약 6개월의 연수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국제어문문화학교

대학의 국제화 프로그램을 대부분이 국내 학생을 보내거나 보내기 위한 교육이었다면 국제어문문화학교는 외국인 및 해외동포를 위한 몇 안 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미 유학 온 외국인이 아니라 현재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홍보와 외국 유학생 유치에 많은 대학들이 오랫동안 실시해 오고 있다.

고종 고려대의 국제하게대학은 매년 여름 4주~6주간 현지 외국인, 해외동포들을 학교로 초청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며 학교기숙사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보통 해외지사나 협정교류대학, 대사관을 통해 홍보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60명에서 100명 정도의 외국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전남대에 한국문화어플리케이션, 경북대에 썸머스쿨이 있다.

글로벌 라운지

연세대에는 실내에서 영어만 사용해야 하는 학생복지건물이 있을 뿐 문을 열 예정이다. 글로벌라운지라고 불리는 이 건물은 컴퓨터실, 세미나실, 복지매장 등 편의시설을 갖춰 외국인유학생과 재학생들의 컴퓨터 쓰이게 된다. 연세대의 한 관계자는 "한국 전통 차를 마시는 공간을 만들어 문화적 다양성을 살리고 싶다"고 밝혔지만 영어만 사용하는 건물 내에 얼마나 다양한 점문화공간이 들어설 수 있을 지, 또 잘 정착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버디프로그램

고려대 이화여대, 연세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디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 친구를 만들어 주는 제도이다.

대부분 어학실력을 쌓으려는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으며 공학에 마중 나가는 것부터 수업 듣고 식사하는 것까지 일정기간동안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 학교는 외국인교환학생과 지원자들을 1:1 또는 1:2 정도로 묶어주고 시타투어, 캠퍼스 투어, 도자기 만들기 등 문화체험 이벤트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송윤경기자
itsj@dongguk.edu



한국 vs. 일본 교환유학생을 만나서

일본 용곡대학을 다녀온 양영순(인철2) 양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



못했다.

- 교환유학생이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 교환유학생으로 가기 1년전부터 일본어 공부를 해왔다. 학교의 교환유학생 모집 공고를 보고 접수했는데 유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내가 다닌 용곡대학의 경우에도 4: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다.

교환유학생의 수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 면접, 일본어 면접과 일본어 필기 시험 등을 치렀다. 교환유학생으로 선발된 후 대부분의 유학 절차는 학교에서 직접 해결해줬기 때문에 절차상의 어려움은 전혀 느끼지

- 일본은 유학생에 대한 제반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 교환유학생으로 갔기 때문에 학비의 경우 현재 등록금의 2/3 정도였다. 용곡대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일본 대학들은 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따로 마련되어있다. 이 기숙사 역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용곡대학 측에서 한 달에 8만 엔씩 생활비를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생활에 별 무리는 없었다. 또한 한국의 한국어학당 같은 어학프로그램이 많아 그곳에서 무료로 일본어를 배울 수 있게 배려해 주고 있어 일본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 뿐만 아니라 유학생 한 명당 두 명 정도의 도우미가 배치돼 일상 생활의 불편함도 많이 덜 수 있었다.

- 일본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 제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처음 일본학생들과 어울리려 한 쉬운일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환학생이라고 하면 관심이 많이 가져주고 함께 어울리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일본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워낙 친절이 몸에 밴 학생들이라 냉대

하지는 않았지만 자유로우면서도 개인적인 그들의 생활에 약간의 놀라웠다.

- 일본에서 돌아온 후 본교에서 유학한 외국인 학생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 내가 교환유학생으로 가 있을 때 우리학교에 와 있던 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다. 무엇보다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우리학교의 경우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하숙집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학교에서 나오는 50만원은 하숙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본에서 가져온 돈으로 생활했다고 말했다.

- 유학생들 중 가장 소중하게 기억되는 것이 있다면.
= 용곡대학의 경우 외국인 학생들이 아주 많다. 내가 있었던 기숙사의 경우 외국인 학생 전용기숙사였는데 그곳에서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세계 각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1년간의 유학생생활은 전공이나 일본어를 배운 것 뿐 아니라 세계를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일본 불교대학 김선이(중문3) 양

“한국의 언어를 공부하고 싶었어요”

- 본교에 교환유학생으로 오게 된 계기는.

= 예전부터 부모님의 나라인 한국의 언어를 공부하고 싶었다. 그런데 교토의 불교대학에는 한국어 학과가 없기 때문에 자매대학인 동국대학교로 한국어를 공부하러 오게 되었다.

불교대학은 동국대학교 외에도 강남대학교, 원광대학교와 교류협정을 맺고 있지만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동국대학교를 선택했다.

중어중문학과에 온 까닭은 평소애 중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불교대학에서도 중국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중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서였다.

- 교환유학생으로 오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 동국대학교에 교환유학생으로 오기 위해서는 한국어 사용능력에 대한 시험을 치러서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간단한 한국어 쓰기 및 말하기, 면접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외에 특별히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다. 하지만 한국어를 일정수준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올해는 나만 혼자 오게 되었다.

지금은 동국대학교에 한국어학당이 생겨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전까지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불교대학 교환유학생은 한국어학당에서 기초부터 가르치는 원광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 왔다.

- 한국어학당 수업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 한국어학당은 기초를 배우는 반과 더 향상된 다음단계를 배우는 반 등 두 종류의 반이 있는데 내가 속한 곳은 후자다. 수업은 주5회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뤄지며, 한국어 문법과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을 배운다.

수업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한 반에 학생이 8명 정도여서 질문이 언제든 가능하며 답변도 성실해 만족스럽다. 한국에 와서 직접 한국사람들과 생활하며 한국어 공부를 하니 일본에 있을 때보다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된다.

- 유학생들에 불편한 점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 크게 불편한 점은 없지만 중국어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 빠르고 뜻을 모르는 단어가 많아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



학교에서 지정해준 도우미가 있지만 학과가 달라 같은 수업을 듣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불교대학은 교환유학생이 오면 같은 학과 학생을 도우미로 지정해 수업도 같이 듣게 하고 학업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학내에 인터넷 상에서 일본어 지원이 되는 컴퓨터는 도서관 3층에 있는 것이 전부다. 정보검색을 하거나 일본으로 메일을 보내고 싶어도 쉽지가 않다. 일본어 지원 프로그램을 학내 곳곳의 컴퓨터마다 설치해주었으면 한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통계 자료로 본 국내 대학 국제화

국내외 유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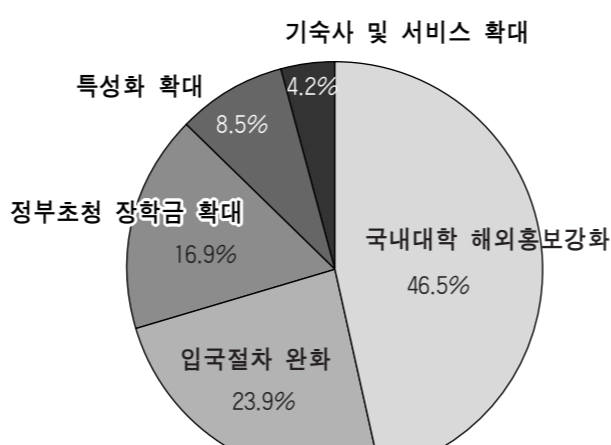
국외로 나간 내국인 유학생이 15만 여명인 것에 비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은 6천 여명에 불과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국내로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전공분야도 한국학 또는 동양학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지역과 전공을 다변화·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분	93년	95년	97년	99년	2000년
국외내국인	84,765명	106,458명	133,249명	154,219명	미집계
국내외국인	1,908명	1,983명	4,753명	6,279명	6,160명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의견

국공립대·사립대·전문대를 포함한 총 51개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것을 조사한 결과 약 50%가 '국내대학 해외홍보강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대학들의 학생 유치 경쟁이 국내시장에만 집중되어 외국 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대학·관련 단체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할 것이다.



세계 속 대학 '사과의 국제화'부터

특성에 맞는 방향설정으로 진정한 국제인 길러야

우리나라 대학을 두고 최근 들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화두는 바로 국제화이다. 이는 우리 대학의 미래와 향후 발전방향이 곧 국제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의 국제화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처럼 접근방법이나 방향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대학 국제화를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잣대가 한 두 가지가 아닌 다양한 요소로써 구성되기 때문이다.

단기간 양적인 성장 거둬

우리나라 대학을 비롯하여 기업, 정부기관 등 전국에 한 바탕 국제화, 세계화 바람이 불고 있던 90년대 중반기부터 한국국제교류담당자협의회는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그 큰 소용돌이 한 복판에서 분주히 뛰어다녔다.

가끔은 허공에 대고 공허한 메아리만을 질러댄 듯한 안타까움도 없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대학의 괄목할 만한 성장, 특히 국제교육 및 교류분야에서는 선진외국대학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 대학이 일궈낸 국제화의 큰 공적은 단기간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큰 파급효과와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대학 내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기능이 강화되고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우수한 인재들의 외국진출의 확대를 예로 들 수 있다.

더불어, 대학 구성원 사이에는 고등교육 개방이라는 현실에서 국제화는 이제 국내 대학간의 우물안식 경쟁을 뛰어넘어 글로벌 경쟁 시대에 각 대학의 사활을 건 하나의 절대조건으로 자리매김 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기초 부실한 대학 국제화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중의 한 가지 즉, 너무나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려 내야하는 가시적인 효과에 급급한 나머지 기초공사를 강화하고 그 위에 건물을 튼튼하게 올리는 과정을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다. 마치 우리나라가 서둘러 OECD에 가입하자마자 IMF 위기상황을 맞은 것처럼, 잘 차려진 밥상을 앞에 두고 안타깝게도 실익은 쌀 밥을 먹는 기분이다.

우리 대학은 나름대로 국제화의 큰 명제를, 집안에 들어서면 딱 버티고 있는 가훈처럼, 항상 서두에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칼리만을 찍어내는 만화처럼 다양성과 개성을 상실하고 있다. 기초가 부실한 대학 국제화는 하나의 유행병처럼 번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조급함에 편승하여 외국대

학과의 자매결연은 공중에 흩날리는 공수표가 되거나 실속 없이 안방을 내어주는 주인의 초라한 뒷모습만을 남기기에 급급했다. 더불어, 우리의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격언을 무시하고 유행만을 좇아 다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

여기에서는 굳이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지나간 과오만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이제는 그 지난 과오를 경계하게 반성하고 벽돌 한 장을 소중히 올리는 심정으로 우리를 추슬러야 한다.

교수, 학생, 그리고 행정전문가로 이루어진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 국제화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고유의 자리매김을 통해서 대학의 국제화는 곧 '사과의 국제화'임을 재확인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의 특성과 조건에 알맞은 국제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각 대학이 특화된 영역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을 키워야한다.

외국인 학생 유치 방안 마련해야

끝으로, 대학의 국제화는 그동안 우리가 치중해 온 외국으로의 진출보다 이제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 학생을 우리 대학으로 불러모아 그들에게 우리 한국의 것을 알리고, 우리 구성원은 그들의 것을 습득하여 진정한 국제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도 대학이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 대학의 자율성과 기타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외국인 학생 초청에 관련된 출입국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협력 관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국제화시대에 외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단기간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커리큘럼의 다양화와 캠퍼스 국제화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더불어, 안으로부터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이 우리 대학에서 다양한 학문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체험 및 과외활동의 기회제공은 물론, 이들이 편히 쉬고 지낼 수 있는 주거시설 확충도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오랫동안 끓인 차의 향기처럼 캠퍼스 곳곳에 스며들 때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세계 100대 대학에 흩날리는 우리의 교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경오

한국국제교류담당자협의회 총무

교육부등 국제경쟁력 평가

구분	순위
국가전체	28위
교육·인적자원	32위
중등교육 등록률	1위
고등교육 이수율	5위
대학교육의 효율성	47위
교육시스템의 효율성	44위

* 자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2000-2001년 보고서

외국인 교수 재직 현황

우수한 외국인 교수의 유치와 초빙은 각 대학의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국내 대학에 임용된 외국인 교수 대부분은 어문학 강의를 전담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다. 학술교수의 임용은 극히 소수일 뿐더러 오히려 교육자적 자질이 떨어지는 외국인 교원이 임용되는 사례까지 있다. 대학의 국제화를 앞당기기 위해 우수하고 능력 있는 외국인 교수 임용과 관련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국가별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계
국·공립대		20	3	1	10	34
사립대		543	91	33	208	875
산업대		33	15	3	20	71
계		596	109	37	238	980

*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나기

이런 뉴스, 거짓말이라도 좋다!



- △동국대학교 하루 아침에 평지되어 핏떡고개 사라지다.
- △동국대 교내 전 언덕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결정하다.
- △등록금 25% 인하.
- △김대중과 김정일이 통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2002년 월드컵 결승. 한국 : 일본, 한국 우승.
- △일본 국왕. 한국에 나라를 들어바치다.
- △미국 부도나다.
- △총장님 에쿠스 팔아 장학금 주시다.
- △한총련 완전 해체.
- △한국 월드컵 4강 진출.
- △모든 교과 절대 평가.
- △남북 통일되다.
- △한국이 프랑스를 5: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 △국방부 FX사업 기종 반복. F15에서 라팔로 반복.
- △한국 애니메이션 대종상 휩쓸다.
- △중도에 1인 1좌석제도와 개인 사물함 생키다.
- △전국 대학 등록금 100만원으로 동결.
- △일본 열도가 바다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 △황선홍 20골로 월드컵 득점왕에...
- △전국 대학 평가에서 동국대 종합 1위.
- △동국문학 신춘문예 대거 당선.
-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모든 학교 휴교!
- △팔라시오 멤버 세계적인 비밀단체로 알려져 충격!
- △불·동 7남매 되다.
- △사후 피임약 학복위에서 무상제공!
- △송윤아 돌핀스 매니저 되다!
- △FX사업에서 F-15가 아닌 라팔을 선정하다.
- △동대 이모양이 한달 동안 20kg를 감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월드컵 우승하다.
- △북권 100억에 당첨되다.
- △우리나라 정권 3금시대 막내리다.
- △총무로, 헬리우드에 이어 영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다.
- △등록금 전액무료 현실화.
- △교육부 시력 2.0 이상인 자에게 등록금 전액 면제!
- △블로장생 알약개발.
- △한국, 세계 경영의 주도국가로 발돋움하다.
- △한민족 국가 대한민국에 미국, 일본, 중국 무릎꿇다!"
- △오노 반칙 인정하고 감동성에게 사과하다.
- △오사마 빈 라덴 한국 경찰한테 잡하다.
- △동국 스포츠 전국대회 우승!!!
- △총장님 등록금 전액 반환하다.

달하나 건강에

올해도 어김없이 만우절이 돌아오지만 그 의미는 전에 비해 많이 퇴색된 듯하다. 십여 년 전만 해도 이날에는 으레 누군가의 거짓말에 이따금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 떠나마 멋적지만 싫지 않게 웃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은 만우절이 정말 있거나 한 것인지 의심할 정도로 그냥 지나쳐 버렸다.

앞으로 점점 더 그 빛깔은 바래지고 어찌면 완전히 그 존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거짓말이 희귀할 때는 하루쯤 그것이 용납될 수 있었지만,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대에서 이런 날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미만한 때문일까. 아니면 그 날 하루만의 일탈조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고도의 실용주의가 팽배한 때문일까.

거짓말은 금기사항이다. 그러나 거짓말이라고 반드시 타기할 것만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실하거나 옳은 말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오랜 동안 동서양을

만우절 단상

막론하고 만우절은 면면히 지속되어 왔는지 모른다. 이로 보아 유래야 어땠든 만우절은 인간의 삶에 유익함을 선사하기 위해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잘못 이해할 때 누군가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날로 변질하기 쉽다. 그 한 예가 경찰서나 소방서에 평소보다 많이 접수되는 그 날의 허위 신고일 것이다. 이런 행위가 만우절의 본질을 심히 왜곡시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각박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 점점 여유와 미소를 잃어가며 살고 있다. 농담이나 우스갯 소리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처지도 그런 여건도 점점 사라져간다. 실상 아무리 그럴 듯하고 흥미 있는 거짓말이라 해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와중에 일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모두가 즐거워할, 재미있고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유익한 거짓말을 주고받는 것은 어떨까.

그렇다면 이때의 거짓말은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일상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활력소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 상사와 부하 사이,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서 밝고 건전하고 해롭지 않은 거짓말로, 이날 하루만은 흥분 즐겼으면 좋겠다. 엄숙하고 위엄이 몸에 배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가볍고 경쾌한 모습으로, 활달하고 쾌활함이 습성화 된 사람은 중후하고 권위 있는 자태로 한번쯤 바뀌 보면서, 모두가 웃으며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축제의 장으로 만우절이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곽 군
인문과학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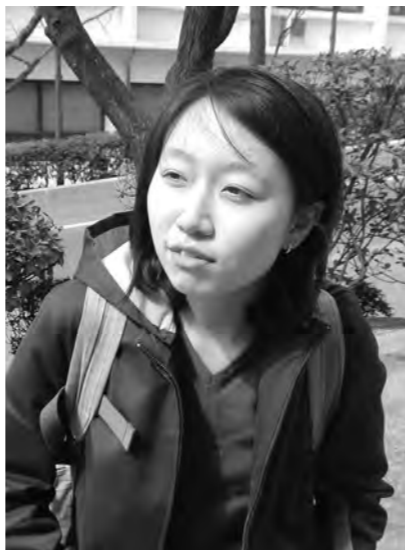


오늘의 킬링

성미현 (미술학 석사과정)

'노키아 미술대전' 그랑프리 수상자

화려한 '기교' 보다 탄탄한 '드로잉' 으로



하얀 한지 위에 목탄으로 아이들이 그네 타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참가한 '노키아 아시아 태평양 미술대전 2001'에 당당히 한국인의 이름을 올린 이가 있다. 바로 그랑프리의 영예를 얻은 성미현(일반대학원 미술학 석사과정) 양이다.

"그랑프리를 탈 줄은 상상도 못했어"라며 멋쩍어하는 성 양은 우연한 기회에 출품해 이러한 결과를 얻어 더욱 감격스러웠다고 전한다.

그의 작품 '그네타기'는 심사위원들에게 돋보이는 독창성으로 'Eye on the world' 리는 대화의 주제를 잘 살렸다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학창시절 입시 때문에 잡게 된 붓으로 이처럼 큰 영광을 거머쥐게 될 줄 몰랐다는 성 양. 그는 "학부 시절 송영방 교수님에게 한국화의 맛을 배웠어요. 그때 배운 송영방 교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제 미술관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라며 스승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는다.

올해 초 태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성 양은 각 국의 남녀 차별적인 미술교육의 실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동양, 특히 후진국은 참가생 대부분이 남자였어요. 여자들의 경우 미술공부를 하기가 어렵대요"라며 경제적 여건으로 남성 중심의 미술교육을 실시하는 몇몇 나라의 교육실태를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영화평 - 아웃 오브 아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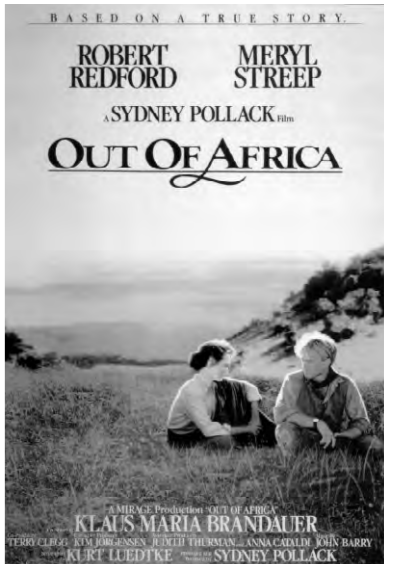
역경을 이겨내는 삶이 주는 감동

내가 본 영화 중 기억에 남는 영화를 하나 꼽으라면 나는 주저없이 'Out of Africa' 라고 대답할 것이다. 메릴 스트립의 섬세하면서도 강한 내면연기는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그녀가 연기한 카렌이란 여인! 연약한 듯 하면서도 강한 여성상은 나의 뇌리에 오래도록 남아 몇 번이고 이 영화를 다시 보게 하는 원동력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카렌(메릴 스트립)은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친구 블린센(클라우스 마리아 브랜다우어)과 결혼을 약속하고 고국을 떠나 머나먼 아프리카로 향한다. 어느 날 카렌이 광활한 초원에 나갔다가 사자로부터 공격받는데 데니스(로버트 레드포드)의 도움을 받는다. 이후 두 사람은 가까워지고 남편과는 성격 차이로 갈수록 멀어진다. 결국 카렌은 남편의 외도를 계기로 이혼한다. 영혼의 동반자인 데니스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자신만의 자유를 만끽해 온 데니스는 거절한다. 결혼의 실패와 커피농장의 파산, 데니스와의 사랑의 상처를 안고 미련을 뒤로 한 채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카렌을 배웅하기로 한 데니스는 오지 않고, 비행기 추락으로 인한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다.

아프리카 케냐의 광활한 사바나 초원이 배경인 한 폭의 풍경화같은 이 영화는 평생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추억과 아프리카에 대한 애착과 역경을 극복한 여성의 모습 그 자체가 아름답다. 땅을 본래의 주인인 부족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총독관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자존심 강한 카렌을 무릎을 꿇게 한 것은 아프리카에 대한 사랑이었을 것이다. 카렌과 데니스의 사랑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진 작품 이어서인지 당시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의 실생활이 좀



더 사실적으로 그려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오래도록 사랑 받아 마땅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해외여행을 어디로 가고 싶느냐고 물으면 대개 진취적인 사람은 아프리카라고 대답한다. 나는 나 자신이 진취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영화를 보고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졌다.

강현민 (컴퓨터학과 행정조교)



동악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예술대, 야층 해오름식 정말 축하해요. -사과대

△동국 문화회, 새내기가 되시는 02화번들 진심으로 감축드립니다. 뜨하하~

△4월 2일 보용 탄신일~. 음하하 축하해 버러.

△중문96 최영찬군의 관광가이드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왕세정

△法96 고XX 결혼 축하해♡

△보영 생일을 축하해버러~ 오래오래 사시게나. -포

△현우야, 과제 축하하고 더 열심히 해라. -현중

△불대! 체교과와 농구시합에서 이긴 것 추카추카! 역사를 이뤘던 02 새내기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불대 영스터즈

△통계학과 이은정, 김나연 생일 축하해~ 용. 건강해라. 모두 축하해줘유~

수고하셨습니다

△공연 준비하는 01화번과 02화번 새내기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풍물패 마당

△국제통상학과 학우여러분, 연합앰버태

은방글

축하합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요.

△현여울 신입생 환영연주회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여울인 여러분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산대 집행부 글구 1학년 과제 여러분 임방식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과대 반앰버 다녀오느라 수고했어요. 반앰버표들 파이팅! -사과장

열심히 하시다

△지교과 4학년, 잔인한 4월달의 교생을 멋지게 해주세요. 참고육의 그날까지.

△사학과 집행부장님들! 앞으로 열심히 해요. -에비시장

△경영대학 학생총회 해오름식 준비 잘 합시다. -애국경영

△피어리스턴 이번주 공연 대박 날게야. 선배님들 동기를 모두 열심히 합시다. ROCK장!

그리고...

△군대간 지 2주된 원재야, 많이 보구 싶어. 사랑해. 건강하도록... -동불 함수

△진옥야, 잘 먹고 잘 살자. -H.S

△수학여행 감사다. 가자! 금강산! -사과대 4대표

△4월 6일 연등원 개장합니다. 모두 모이세요. 6시 연화원!! -불교학생회

은방글

축하합니다

△4월 3일 생명공학과 3학년 정훈이 생일입니다. 추카추카~ -선희가

△국제통상학과 3학년 회계학과 복수전공, 학사지원실 근로 최재은 생일 축하해요~

△신랑 보성군과 붕어 우상군의 생일을 축하해요~! -실장 양희

△푸우 수진아 늦었지만 니 생일 왕따시 축하해! -보챙이

△보경야! 진현과의 끈질긴 인연으로 3년 된 거 축하해. 부디 아들, 딸 낳고 잘 살그라임~ -진이가

△기획국장님. 짱아 아빠된거 축하드려요.. 유니짱!!

수고하셨습니다

△올 미러랑 소현이 넘 열심히서 너무 사랑스러워~ ♡언니가 만나 못 도와줘서 미안하구. 동배 뿔이얏!!

△영화모임 '소나비' 가족들 영화제 준비하느라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소리 10기 언니, 오빠님! 지난 1년 감사합니다~

△중문과 신입생환영회 해주신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시다

△불교학 3학년 무우호 교생실습 잘 다녀오세어~ -관음407호 일동

△화랑과 원화 첫 하이킹(답사) 잘 다녀오세어.

△임선된 최강의 집부진 교직원회 파이팅

△98.경현, 대영, 의석오빠들 수미누나 좀 친하게지내요. -이쁘니

△불동 4학년 남은 1년 열피미 하자.

△마음소리 11기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잘하구 있으니까 힘내! 예쁜 12기 파이팅

△해룡야, 해병대 열심히 잘다녀와라 -거사인들

그리고...

△이러지 맙시다! 원다방에서 탐배 좀 태우지 맙시다. -joo

△중삼야 힘내라! 사랑한다. -bssj

△겨북야 바람 불어와 니 마음 날려도 언제나 곳곳해야 해! -준 바라밀 보강

△Yoo-Loss 10기들, 힘내라! 화이팅!! -8th女

△불휘 파이팅!!! 불휘人들 행복하세요~

△경민, 재남! 학교생활 고생이 많다. 힘내라!

△새로 들어온 수습들, 언제 한번 보세~

금주의 식단

서울캠						
	월(4/1)	화(4/2)	수(4/3)	목(4/4)	금(4/5)	
동국관	참치우거지탕 (1500) 치킨볶음밥 (1500) 너비아니백반 (1500)	김치탕 (1500) 쇠고기카레라이스 (1500) 순살돈까스 (1500)	바지락수제비 (1500) 제육김치덮밥 (1300) 닭도리탕 (1500)	갈비탕 (1500) 자장밥 (1300) 오징어버림밥 (1500)		식
상록원	햄숙어찌개 (1500) 참치볶음밥 (1500) 두부김치 (1500)	떡만두국 (1500) 소고기하이라이스 (1500) 닭고치구이 (1500)	된장국백반 (1500) 해물덮밥 (1500) 나물버림밥 (1300)	어묵김치찌개 (1500) 탕수육 (1500) 잡채밥 (1500)		목
교직원	사골우거지탕 (3000) 참치회덮밥 (3000)	동태찌개 (3200) 카레라이스 (3000)	참살스테이크 (3200) 고등어무조림 (3200)	순두부찌개 (3000) 닭강정 (3200)		일

경주캠

	월(4/1)	화(4/2)	수(4/3)	목(4/4)	금(4/5)	
학생회관	무채어묵국 (1300) 닭갈비볶음밥 (1700) 스페인취족첩 (200) 곰탕 (1800)	아묵국 (1300) 불고기덮밥 (1700) 양송이볶음밥 (1800) 육개장 (1800)	동태매운탕 (1300) 카레라이스 (1500) 생선가스 (1800) 물냉면 (1800)	쇠고기두부찌개 (1300) 김치볶음밥 (1600) 낙지볶음덮밥 (1800) 육개장 (1800)	시금치국 (1300) 비프가스 (1800) 곰탕 (1800)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합시다

K교수 수업폐강을 바라보며

관점1

관점2

도덕적 양심이 없는 교수를 학생들은 용납할 수 없다

수업들을 권리 빼앗긴 학생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2000년 여름 일어난 사회학과 K교수의 성추행 사건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은 채 학생들과 K교수와 의 지속적인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후 학교측은 K교수를 해직시켰지만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성추행 사실은 인정되나 해직은 죄의 무게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라며 1개월 정적의 감경처분 명령을 학교측에 내렸다.

이에 학기말 수강신청 기간부터 사회학과와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수업 거부운동이 진행 되었다.

수강신청 기간 동안에는 컴퓨터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방중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K교수 복직의 부당성을 알렸다.

수강신청 기간 동안에는 컴퓨터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방중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K교수 복직의 부당성을 알렸다. 개강 이후에는 K교수의 수업시간 전에 강의실 뒤에 서서 침묵시위를 하고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에게 사건의 내용을 알리고 수강신청변경을 권

유하였다. 결국 K교수가 이번학기에 맡은 3과목 모두 인원 미달로 폐강이 되었고 수업 거부운동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비록 많은 학생들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긴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수업이 폐강되었지만 K교수는 여전히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고 자신의 죄 또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육자로서 도덕적 양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K교수를 학생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학생들은 법적인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K교수와 피해자 그리고 학생들간의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번 학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K교수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진사퇴하기 전까지 수업 거부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K교수 한사람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K교수가 정말 학생들을 사랑한다면 성추행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인재 (사과대 사회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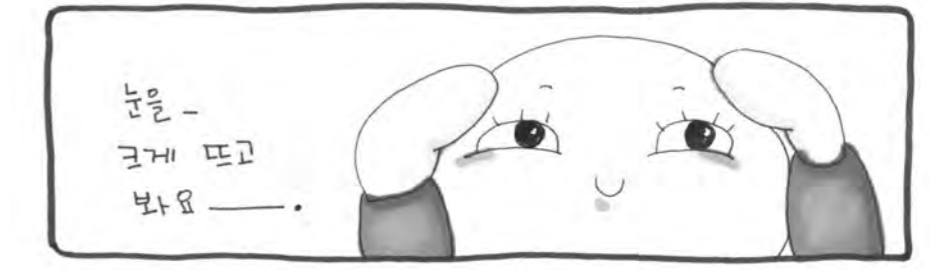
학기초부터 학교 곳곳에 붙었던 '성추행 교수의 수업을 듣지 마시오' 라고 크게 쓰여진 내용의 대자보를 보지 못한 학생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K교수의 수업 3과목이 모두 폐강돼 일당락 된 듯이 보였다. 그렇지만 과연 이번 사태가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가 K교수의 복직 반대 운동을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직 반대 운동 이전에 보다 중요한 또 하나의 요구사항을 학교측에 요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폐강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한 점이다.

이번 학기 사회학 전공수업증에 3과목이 K교수의 수업이었다. K교수 복직 반대 운동을 추진하는 학생들은 무작정 K교수 수업반대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학교측에 사회학 강좌의 확대 개설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어야 했다. 사회학을 복수전공으로 신청하거나 사회학과로 전과를 원하는 학생들이 입는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3학년 1학기를 시

작하는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학기 K교수의 과목은 수강 가능한 최대 4번의 기회 중 한번의 기회를 고스란히 잃고 만 것이다. 비록 폐강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된 학생의 수가 적다고는 하지만 작은 피해일지라도 소홀히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학생회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학교 또한 개강 전부터 학생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개강을 맞더니 이내 K교수 수업이 폐강되자 수업을 듣고자 했던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설명이나 입장표명 없이 통보만 했을 뿐, K교수 사건의 정확한 진위나 과정에 대해서 이렇다할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성추행 교수는 절대로 강의를 할 수 없다' 라는 학생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성과물로서만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소수일지라도 수업을 들을 권리를 빼앗긴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 학생회와 학교 당국은 다시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박정원 (문과대2)



식목일을 맞아서

희망과 미래를 심는 나무심기

식목일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 며칠 전 중국의 고비사막으로부터 전에 찾아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황사가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가 유치원·초등학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금년 식목일의 의미는 과거 어느 때보다 새롭다고 할 수 있다.

식목일은 1910년 조선말엽 순조 임금 이 친경제 거행시 신라가 삼국통일 성업을 완수한 날(문무왕 17년 4월5일)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다. 식목일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정해 놓고 있다. 그만큼 나무를 심고 기르는 일은 국가의 미래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입업 국가인 독일의 경우 4월 한달 동안을 나무 심는 달(Tag des Baumes)로 지정해

놓고 있으며, 미국은 1872년에 4월의 마지막 금요일을 식목일(Arbor Day)로 정하여 각 주별로 주를 상징하고 있는 특색 있는 나무를 널리 보급하고 있다.

올해는 월드컵, 세계 꽃 박람회 등 굵직한 국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산림분야에서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구 환경파괴 및 사막화로 인한 황사, 가뭄, 산성비 등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해 2002년을 '세계 산의 해(International Year of Mountain)'로 지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녹화에 성공한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외국인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산림하면 우리에게 목재, 가구, 종이 등을 제공하는 생산적 기능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자원확보 측면에서 이에 대한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두말할 나위 없지만, 최근 자생식물, 야생동물, 산림미생물 등 종다양성 보전, 깨끗한 물 공급, 이산화탄소 흡수를 통한 대기공해 정화, 산사태 방지 등 환경적 기능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산림관련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해동안 산림의 환경보전에 대한 가치가 총 5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국내 총생산액(GDP)의 10%에 해당되는 액수로서 산림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나무심기는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환경친화적인 나무를 개발하여 널리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의 희망과 미래를 심는 것이다.

강 호 덕

생명자원과학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오소와 함께 하는 진정한 자아 찾기

진정한 나라면 '지금 내가 진정한 나이지 다른 내가 있나' 하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오소를 접하기 전까지는 이런 철학적 이야기에 거부감을 느꼈었다. 하지만 친구의 권유로 오소의 책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제까지 내가 접했던 모든 관념들을 한번에 부수게 됐다. 오소 라즈니쉬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현대인들의 생활 모든 영역에서 잘못된 의식을 통렬히 비판했다. 그는 순간에서 순간을 사는 삶을 강조하며 삶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며 오로지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라고 했다. 또한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오로지 현재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오소의 책을 통해 나는 내 삶이 거대한 바다에서 방향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내 삶을 돌아보며 진정한 나를 찾는 여행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나의 이러한 생각은 얼마가지 않아 한계에 부딪히게 됐다. 오소의 글을 보며 그와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지식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지식은 그저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모아놓은 창고에 불과하다. 즉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정한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싶었던 나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그저 지식으로서의 오소의 말들은 나에게 진정한 나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 삶에서 가장 큰 행운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난 주저하지 않고 오소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이 오소를 알게된 인연이 반드시 진정한 나를 찾는 여행의 도착점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박성호 (경영대 회계2)

사물함 선정 공정하게 이뤄져야

새학기가 되면 누구나 사물함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물함을 신청하고 있다. 학생 수대로 사물함이 배정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물함이 부족한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사물함 당첨자를 정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1학년부터 사물함 당첨 대자보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선발의 공정성 문제다. 학생회에서 하는 일이니 믿고 따라야 하겠지만 과연 공정한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사물함 선발의 공정성 문제 외에 사물함의 대여비가 부담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사물함이 정작 당첨된다고 해도 학기에 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사물함을 사용해야하니 등록금이 매일 비싸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물함 대여비는 비싸다하

여 항의를 하지 않는다.

사물함도 대학교의 복지시설의 하나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의 사용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들로서는 그 사용비를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학생회 측에서 사물함 선발의 공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대안들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물함의 대여비가 그 정도라면 어떻게 해서 그 만큼의 대여비를 받게 됐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그 돈이 쓰여지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공개했으면 한다.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궁금하듯이 우리들의 작은 돈 하나도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이 동대인의 진정한 모습 아닌가.

김유미 (사과대 신방2)

동아리, 대학에서 가장 값진 보물 창고

내가 대학에 들어와서 남은 기억은 동아리 추억뿐이다. 나는 학과로 입학했지만 학부로 입학하는 후배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들은 학교에서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우리 동아리 후배들은 공간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동아리 방에서 같이 쉬거나 밥을 먹는다. 편안한 동아리 방에서 4년이라는 기간을 동아리 식구들과 함께 한다면 정말로 친형제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캠퍼스 커플도 나오고 그들의 인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배들의 조언과 추억이 남게된다.

내 추억의 산길을 더듬어 보면 01학번이 새내기였던 때, 그들과 등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을 해 비명을 질렀던 기쁜 추억과 축제 때 밤새 걸어서 석굴암의 해돋이를 보러갔던, 힘들었지만 잊지 못할

이군행 (법정대 법3)

쉽게 포기하기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길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자신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은 모두 곁에 있다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가 많다고.

그렇다. 내 자신은 물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삶의 진리는 쉽게 느낄 수 있다.

요즘 들어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마도 휴학한 선배들이나 재수를 시작한 친구들의 푸념을 자주 들어서 일 것이다.

그들은 뭔가를 이룰 것이라는 분명한 결의 없이 막연히 자신이 서 있는 위치보다 더 나은 곳의 환상 때문에 자신의 현재를 포기했다. 물론 휴학과 재수를 결심한 사람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내게 닳뜨리를 늘어놓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이다.

자신의 자리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허황한 미래를 쫓아 나서는 만큼 위험한 것이 또 있을까. 물론 그들도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러나 생각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괴리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자신을 구축하는 속력이 없는 사실이다. 말에 어찌가 있어 보이지만 이것처럼 자신의 의지가 중요한 경우도 드물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모든 상황이 진행되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모험과도 같다. 이러한 모험이 짧은 시절에 해를기만 하겠나 만은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신중한 생각이 필요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겪는 만큼 힘들며 고민을 가지고 있다. 포기가 필요하고서야 가능한 일을 선택할 때에는 그것이 회피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권열모 (인문대 영문2)

동대신문사는 여러분의 특목 특는 참신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대신문을 읽고 느낀 점이나 학내의 주요 사건에 대한 주장, 시나 수필, 책, 영화를 보고 난 후의 감상문 등을 200자 원고지 4매 분량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서울 ☎ : 2260-3491 • 2 FAX : 2270-1270 경주 ☎ : (054) 770-2058 FAX : (054) 2260-2057 문의·재보 : dgupress@dongguk.edu

자신도 동대신문을 읽고

토론 부재 실감한 계기 활성화 위한 접근 돋보여

지난 신문의 주제가격은 '토론 문화'였다. 토론문화 기획기사는 논쟁을 즐기는 이들의 거대한 곳을 열어 주는 좋은 기획이었다. 특히 '열린 토론 현장'을 찾아서란 내용의 기사는 원탁토론이라는 평범하지만 신선한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시선을 끌었다. 기사에서 지적한 부분 외에도 원탁토론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토론은 말로만 구성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토론을 하다보면 비단 상대편의 말뿐만 아니라 제스처나 눈빛 등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쉽게 전해져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사를 보면서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평균 60여명정도

수업을 듣는 현재의 강의실에서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기는 그것도 원탁토론의 형식으로 토론을 꾸려나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학기 중에 한 두 번 시도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토론 기사 곳곳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야말로 토론의 기초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도 공감이 갔다. 상대에 대한 배려는 상대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생동감 있는 토론이라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제가 될 것이다.

주제기획 기사를 읽으면서 토론에 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올바른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작은 실천이 될 수 있는 원탁토론이 학내에서 좀더 활성화되길 바란다.

윤은규 (사과대 경영3)

시기성 아쉬운 기사 참신한 시각 필요해

지난 동대신문을 읽고 시기에 맞지 않는 기사들이 많아 실망한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우선 문화면에 실린 옛보기 문화는 1, 2년 전부터 여러 매스컴을 통해 거론된 얘기였다.

관련 사진으로 나온 나쁜 남자도 이미 지나간 영화고 기사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한 듯 싶다. 또한 옛보기 기사에서 예시로 든 O양 비디오와 트루먼 쇼는 너무나 듯 싶었다. 그렇다고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것도 아니

라 예전 문화면에서 볼 수 있었던 신선한 시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한 기획면에서 다른 토론문화 역시 거리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토론문화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다. 토론문화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 어디에서 본 듯한 기사로 두면 채워졌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해설면의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기사는 지금까지 일간지에 나온 관련 기사를 요약 정리한 것처럼 보였다.

다음호 동대신문에서는 대학 신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특목 특는 소재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김승민(불문대 불교3)

인터뷰 - 작가 조정래

3000°C의 불에서도 녹지않을 불굴의 작가정신



대를 구체화하는 것은 역사성 확보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여기에 비로소 작가의 상상력을 보태는 것이다. 이 3단계를 거쳐 소설을 쓰는데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취재를 계속한다.

그래서 '아리랑'은 지구 세 바퀴 반을 돌아 얻은 작품이고, '한강' 또한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두 달 동안 6,70년대의 신문을 정독하며 중요한 사람들을 일일이 메모해 완성한 작품이다.

●●
**진실 담아야
만년의 생명 유지하는
진짜 문학이라네**
●●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이 단어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또렷이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바로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문학으로 고스란히 복원한 작가 조정래.

얼마 전 '한강'을 완간 하고서야 비로소 20년 글감옥에서 출옥할 수 있었다던 그를 만나. 그에게 소설이란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문학정신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 굳이 대하소설을 고집하는 이유는.
= 20세기를 관통하는 한국의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남북 정권은 정치적 이유로 역사를 왜곡하기에 급급했다. 역사학자들도 국가보안법 때문에 이를 무관심으로 일관하기 일쑤였다. 이로 인해 남북이 함께 공유해야 할 우리의 역사는 반 토막 찌리, 애꾸눈의 역사가 된 것이다. 이에 분단시대를 사는 작가로서 민족사를 제대로 써야한다는 책무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의 거대한 산맥같이 복잡하고 장구한 우리의 역사를 단편이나 중·단편으로 쓰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었다. 그것은 마치 곡괭이로 한 골짜기만 파다 마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다 총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대하소설이 필요했던 것이다.

- 작품 속에 굉장히 광범위한 시·공간이 등장한다.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는가.
= 먼저 모든 인쇄물을 섭렵해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이어 소설의 무대가 되는 현장을 반드시 취재한다. 무

- 소설쓰기의 원칙이나 작가의식이라고 한다면.
= 소설이 단순재미나 흥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만년의 생명을 유지하는 문학이 후대에까지 남겨지기 위해서는 진실과 진정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간에게 기여할 수 있는 있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학이다.

- 문학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꼬막'과 '뿔'은 내가 태백산맥에서 처음 공식화한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이들이 쉽게 쓰는 말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한강에서도 의도적으로 '노크'를 '손기척'으로 전부 바꾼 것이다.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은 민족적 위상에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언젠가는 '손기척'도 '꼬막'이나 '뿔'처럼 일상적으로 사용될 날이 올 것이다.

문자의 힘은 만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 고로 문자의 생명력에 의존하는 문학의 힘은 그 어떤 다른 매체보다 강력하고 끈질기다고 믿고 있다. 때문에 한강에서 통일을 상징하기 위해 유일민과 임채옥의 사랑을 끝없는 수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끝내 완성한 것으로 그렸으며, 또 유일표와 이상재의 돈독한 우정도 지역주의의 타파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픈 말은.
= 나는 '노력'이란 말을 가장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학생들은 무슨 일든지간에 목숨을 걸고 노력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그리고 노력하라. 노력하면 녹지 않을 쇠가 없다. 노력한 삶을 살아야 훗날 후회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한국잡지정보관'에는 즐거움이 줄을 섰다!

시대별 잡지 전시 ... 다양한 정보와 재미 얻을 수 있는 문화공간 될 것

요즘 한창 잘나가는 잡지들의 표지모델은 개성있는 외모의 배우나 모델이 대부분이다. 만약 한 잡지의 표지를 꽃이나 동물그림, 혹은 잡지이름으로만 채운다면 그 잡지의 판매량은 어떨까. 아마 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19세기 잡지들은 동물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지로 내세워 독자들의 저항의식이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일조했다. 이처럼 잡지의 표지는 각 시대의 얼굴이자 문화를 읽어내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난 달 21일 개관한 '한국잡지정보관'은 우리나라 잡지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한국잡지협회(회장=이심)가 문화관광부의 지원과 후원 잡지사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한국잡지정보관은 전시 잡지의 종류만 무려 3천 500여가지에 이른다.

종류 또한 시사, 문화, 예술, 의학 관련 잡지에서부터 일반도서관에서 찾기 힘든 지역이나 학술지까지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으며, 이것이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돼 있어 손쉽게 자료를 검색할 수도 있다.

그리고 19세기부터 20세기 초 발행된 잡지들의 창간호를 모아 놓은 '잡지박물관'에서는 시대순으로 배열한 잡지를 통해 당시 시대상을 읽을 수 있다. 특히 호랑이가 울부짖는 그림의 '개벽' 창간호 표지가 일제의 검열로

바뀔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문구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일제의 문화통치를 실감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전시관에서는 '현대문학'을 창간한 조연현을 비롯해 우리나라 잡지계에 큰 획을 그은 차상찬, 김동환, 황준성의 친필원고와 소품 등이 전시중이다.

한편 한국잡지정보관은 전시 외에도 다양한 문화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영상이스텝을 갖춘 특별전시관은 대학생 소모임이나 시민단체들의 세미나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잡지기자들 전문육성하는 '잡지 아카데미'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잡지정보관 큐레이터 김효선 씨는 "전통차를 즐길 수 있는 북카페도 마련해 단순한 전시관이 아닌 도심 속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잡지는 각 분야의 보다 전문적이고 폭 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매체로서의 큰 매력을 가진다.

외국의 경우 잡지가 하나의 매체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잡지를

흥밋거리로만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잡지정보관의 개관이 바로 이러한 잡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깨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클릭! - 인디매니아(www.indym.com)



있다는 점이다. 가령 딸기 모자를 쓰고 삭막한 도시인들의 고민을 성심 성의껏 들어주는 '딸기 사나이', 그리고 정의와 선생님의 멋진(?) 활약을 만화주제곡에 절묘하게 접목시킨 '청춘삼' 등 이들 작품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과격적인 제작방법의 시도로 그동안 우리가 접해 온 TV나 영화에서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네 멋대로 영화평'이나 'OST 이야기' 등과 같은 컨텐츠를 통해 전문적으로 영상을 공부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실용적 영상에 대한 보고, 단편영화 상영정보, 디지털 영화제작 콘텐츠 정보 등 보는 이에게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사이트를 개개인의 자율에 맡겨 운영하다 보니 게시물이나 작품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또한 등록되어 있는 작품들도 짧고 감각적인 발상이나 시도에 비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는 못하다.

문화부
culture@dongguk.edu

문화단신

서울여성영화제

제4회 서울여성영화제가 오는 4일부터 9일간 서울 동숭아트센터와 하이퍼텍 나다에서 열린다.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는 모토 아래 지난 1997년부터 격년제로 열리던 이 영화제는 올해부터 연례행사로 바뀌게 되었다. 총 7개 부문에 걸쳐 21개국에서 출품한 80여 편의 작품이 소개되는 올해는, 이란의 여성감독 타미네 미라니의 대표작을 소개하는 특별전 등 예년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밖에도 '아시아에서의 여성주의 영화'를 주제로 한 포럼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이 오는 7일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관람을 실시한다.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와 중산·서민층의 문화생활의 질을 향상하고자 문광부가 마련한 이 행사는 매월 첫째주 일요일을 '박물관·미술관 가는 날'로 지정하고 누구나 아무 부담 없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문광부는 이를 위해 설·추석 연휴 중 휴관일에도 미술관과 박물관이 정상 개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다.

매체비평

영화 편

‘집으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외할머니 품속으로의 초대”



할머니와 어린이, 한국 대중영화에서 가장 흥행성이 없는 최악의 짝짓기이다....

영화의 첫 장면은 이혼한 엄마가 어린 상우를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기차인이다....

심산골, 꼬부랑 할머니가 홀로 사는 오막살이 골짜기이다. 장작불에 가마솥, 요강과 가마니로 가린 화장실, 전파도 안 잡히는 TV....

영화의 중심은 서울 꼬마와 시골 할머니의 관계이다. 상우는 햄버거 피자, 컴퓨터게임과 롤러블레이드, TV 속에서 자기밖에 모르며 살아온 철없는 꼬마이다....

뽀아간다. 승우의 심술은 늘부급이다. 할머니가 정성스레 케찹 곱고 고추장을 버리고, 요강을 발로 차 깨버린다....

할머니는 위대한 자연을, 승우는 각박한 문명세계를 상징적 대비로 삼아 도식적으로 풀어나가는 듯하던 이야기는 어느 순간부터가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진 이미지의 자락을 건드린다....

머니... 말없이 온종일 일하는 화면 속 할머니를 지켜보면서 고맙다는 말 한번 안 하는 철없는 서울 꼬마를 보면서 우리는 모두 자신의 마음 속에 품어둔 어머니나 할머니를 꺼내려 시작한다....

유지나 예술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중독, 혼돈시대의 정신적 자살

하루 4시간 인터넷을 하는 것이 사용하는 학생에게는 '4시간 밖에'지만, 그 학생의 부모에게는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무려 4시간씩이나'가 될 수 있다....

소외 혹은 착취시대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전문가를 대접해주는 시대가 되었다. 달리 말하면, 대다수의 비전문가를 배척하는 혹은 소외시키는 혹은 무시하거나 착취하는 시대인 셈이다....

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도구를 찾아나섰다. 때로 술을 발견하기도 하고, 엑스터시를 만나기도 하고 혹은 인터넷을 경험하기도 한다....

시간이 흐르고 외로움을 달래주던 친구같은 그 도구들이 어느 새 가면을 벗고 울기마로 유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중독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우울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낮은 편이다....

새로운 정체성의 아바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아바타는 현실에서의 자기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새로운 '삶', 꿈꾸던 삶을 실현해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컴퓨터를 끄는 순간 돌아온 내 모습이 조금 더 초라해질 것을 각오한다면 말이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충동적이다. 그들은 생각 없이 위험에 뛰어들기도 하고 때로는 시작할 행동을 그만두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만 뒤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전보다 더 긴장을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이 중독의 늪으로 빠져들 뿐이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중독의 대상을 사랑하기까지 한다. 재미를 주는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싶기까지 하다....

건강하지 않은 중독은 정신의 자살이다. 한 심리학자가 자살자들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인지적 몰락'이라는 용어를 썼다. 정신기능이 축소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 '인지적 몰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과거나 미래에 대해 혐오하거나 불안하게 여기며 현재의 순간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시간적 조망의 축소가 일어난다. 둘째, 광

의 사고 및 감정보다는 즉각적인 움직임과 감각에 집중하는 구체성을 보인다. 셋째, 장기적인 목표가 없다. 넷째, 의미를 부정하며 상황에 대한 상위수준 해석을 회피한다.

인지적 몰락의 결과

그리고, 이러한 인지적 몰락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 행동에 대한 역제가 풀리게 된다. 둘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회피하는 수동성과 무책임성이 나타난다. 셋째, 의미 있는 통합적 해석과 연관된 부정적 정서로부터 도피하여 정서의 결핍을 보인다. 넷째, 환상이나 비이성적 사고에 취약하게 된다. 지금 나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몰두하고 있는 그 대상을 다시 돌아볼 때이다. 주 리 에 한국미술치료연구원 부소장

매체가 전하는 무언의 경고

간접경험 통한 대리만족 ... 다양한 형태 중독 다뤄

우리는 TV에서 권투나 레슬링을 보며 종종 묘한 쾌감에 빠진다. 이는 일상 생활 속 경험을 통해서 쉽게 해소될 수 없던 억눌린 폭력적 욕구가 분출되면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매체를 통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접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충분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중독의 세계이다. 이에 중독은 더 이상 정신질환으로만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하나의 문화코드로 자리잡게 되었다....

얼마 전 개봉을 두고 화제가 되었던 '레퀴엠'은 마약중독으로 인해 삶을 황폐화시키는 네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이다. 하지만 영화는 비단 마약 뿐 아니라 TV, 커피, 음식 등 우리가 자주 접하는 주위의 모든 사물이 삶의 마약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한다....

또한 영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는 알코올 중독자인 주인공의 모습을 그리면서 술에 탐닉해 정신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연극무대에 오른 중독의 모습은 좀더 우리 일상에 가깝다. 대표적으로 'TV 파라다이스'에는 TV에 중독된 가족이 등장한다. 이 연극은 가정의 사업 실패로 위기가 닥치자 이를 TV라는 허상의 세계에 빠져 극복하려 하는 가족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한다. 이외에도 창작 뮤지컬 '오, 마이 갓!'

역시 TV에 중독된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인물의 캐릭터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실적인 TV 중독자의 모습을 자세하게 표현해 극의 현실감을 더했다....

중독자들이 자주 등장하는 매체 중 또 다른 하나는 소설이다. 먼저 성석제의 '해방'은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남자가 술에 의존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삶이 허무하다고 느끼는 주인공은 술에 취해 환각상태에 이를 때 비로소 현실로부터의 해방감을 느낀다. 또한 인드라 신하의 '사이버 집시들'은 사이버세계를 현실이라 여기고 그 속에서 삶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사이버 중독자들을 그린 작품이다. 특히 작품에 등장하는 사이버 중독자들의 모습에 대한 정밀한 묘사에서 요즘 부쩍 증가한 인터넷 중독자들의 실상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중독은 여러 매체를 통해 다채로운 모습으로 대중들을 만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 등장하는 갖가지 중독자들은 광기어린 사람들의 모습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이들에게 중독의 위험성까지 고발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인공들이 중독 전의 모습을 열망하며 타이처럼 움직이는 '레퀴엠'의 마지막 장면은, 감독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독에 대한 무언의 경고일 것이다. 김하나 기자 selllyone@dongguk.edu

중독이라는 이름의, 파국으로 가는 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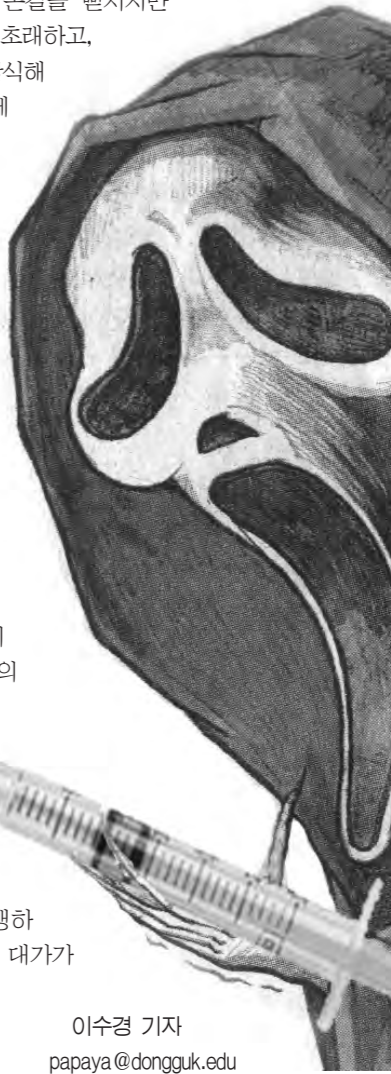
예술가 · 정치가 · 황제 등 인물들 통해 본 역사속 사례들

19세기 영국의 비평가 토머스 드 퀸시는 그의 작품 '어느 아편중독자의 고백'에서 아편을 "내면의 심성 세계를 언제라도 열어 보일 수 있는 자극제"라고 말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심각한 아편중독자였으며, 작품을 통해 아편이 주는 쾌락과 매력 그리고 환상, 불안, 우울증 등 아편중독에서 오는 부작용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이야기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가 아편을 통해 예술적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그만의 것은 아니었으며, 낭만주의 시대 수많은 예술가들이 술과 약물에 젖어 창작활동을 펼쳤다. 시인이자 소설가였던 에드워드 앨런 포는 알콜중독이었으며,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는 하시시와 아편에 탐닉했다....

이러한 중독은 약물이나 알콜에 의한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사람들의 가장 내밀한 곳에 숨어 있는 욕망의 형태로도 발현되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그 권력으로 인해 파멸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와 군사독재를 휘두르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역시 권력의 달콤함에 중독된 나머지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람들이다. 또한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는 불로불사의 소망을 이루고자 수은을 먹고 얼굴에 발달했다. 그러나 수은은 소량을 섭취할 경우 일시적으로 피부를 팽팽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뿐,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간 흡입시 중독증세가 나타난다. 이에 시황제는 결국 수은중독으로 코가 찢고 정신병이 생겨 폭

정을 거둬다가 사망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탐욕스러운 열망, 혹은 극단의 쾌락과 만족에 도달하고자 하는 중독의 이면에는 중독된 이를 파국으로 이끄는 위험한 욕망이 있다. 처음에는 달콤한 모습으로 유혹의 손길을 뻗지만 결국 금단현상을 초래하고, 서서히 생명을 잠식해 가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역사 속 각 분야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들 역시 중독의 손길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이처럼 중독은 인간에게 잠시 동안의 파라이시스를 제공하는 대신 그것에 빠져들었던 인간의 파멸을 요구한다. 하지만 중독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너무 큰 대가가 아닐까.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메아리

트루프렌드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겠습니다.” 지난해 화제가 됐던 한 증권사의 광고문안이다. 고객을 위해서라면 ‘예’도 ‘노’도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자신감을 갖고 고객중심의 영업전략을 펴겠다는 것이다. 올해 선보인 광고는 더욱 의미심장하다. “쉽게 듣지 않겠습니다. 쉽게 보지 않

겠습니다. 트루프렌드 XX증권” 지난 2년간 고객만족도 증권서비스 부문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이 증권사는 이같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올해 3연패를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5조 원 이상을 들여 새 전자기 40대를 도입하는 국방부의 차기전투기 사업결과 ‘예상대로’ 미국 보잉사의 F-15K가 결정됐다.

1단계 평가 결과 F-15K와 라팔 두 기종의 점수 차이가 작아 2단계 평가를 하게 됐다 하지만, 2단계 평가에서는 한미 동맹관계 등 정책적인 사항이 작용하는 만큼 보잉사의 F-15K가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차기전투기 사업만큼 국민들의 비판에 시달린 사업도 없었을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엄청난 예산이 드는 차기 전투기 사업이 남북 화해시대에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하고 시행초기부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심사 과정에서 선정 기준이 F-15K에 유리한 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반미감정이 고조되면서 미국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정서를 외면한 채 여전히 미국무기 사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듣지도, 보지

도 않은’ 채 모두가 ‘노’라고 말하는 차기전투기 사업과 F-15K 선정에 대해 홀로 ‘예스’라고 대항하는 정부, 고객에게 ‘트루프렌드’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기업과 달리 정부는 미국의 ‘트루프렌드’가 되기 위해 인간됨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를 ‘프렌드’라 보아줄리 만무하겠지만 말이다. 우정현 사회부장 caesar2000@dongguk.edu

동아리 탐방 — 서울캠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바람소리'

우리는 매주 하늘로 비상한다

주중은 장비관리로 안전예방, 주말은 패러글라이딩

주말이 되면 지하에서 하늘로 비상하는 이들이 있다. 학생회관 지하 1층에 위치한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바람소리' 회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88년 창립해 1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바람소리는 국내 몇 안 되는 대학 내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중 하나다. 이들은 주위 환경에 민감해 관리가 어려운 각종 장비를 매일 정비하고, 주말이 되면 이·차륙에 적당한 활공장을 찾아다니며 비행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

"장비 관리와 산을 찾아다니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기상 예측은 여전히 막막해요"라고 말하는 동아리 회장 윤연호(생자대2)군은 날씨를 비행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다. 이들은 약 200여 미터 높이의 산을 무게가 10킬로그램 이상 나가는 장비를 메고 올라가도 날씨가 안 좋으면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조류가 활공인의 선배'라는 말이 생길 정도다. "허탕치는 날엔 다리에 힘이 빠져 올라갈 때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그래도 하늘을 나는 기분을 잊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되지요"라고 회원들은 말한다.

날씨가 어쩔 수 없는 위험 요소라면 안

전에 대한 예방은 이들의 몫. 이들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않기 위해 비행 준비 시 서로에게 엄격한 동기, 선·후배가 된다. 그러나 비행 때마다 찾아오는 좁은 활공장 선배와 "선배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비행이 가능하다"는 후배의 말 속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레저스포츠가 각광받으면서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바람소리는 7년 전부터 여름방학이면 일반인 또는 타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부강습을 하고 있다.

"외부에서 활동하다보면 학생이라고 배타적으로 대하는 동호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패기와 열정만은 전문가도 우리를 따라올 수는 없을 거예요"라고 한 회원은 말한다.

새와 함께 하늘을 날고, 구름을 직접 만져보는 동화 속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매주 주말이면 경험하는 바람소리 회원들.

한 여름에도 긴 바지, 긴 팔 차림으로



패러글라이딩

바람소리 회원이 활공하는 모습.

활동해야 하지만 흐르는 땀방울을 식혀줄 바람이 있기에 그들의 비상은 계속될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취업·자격증 정보

유망자격증 선택, 상대적으로 판단하자

일반적으로 해가 바뀌면 자격, 직업과 관련한 기관마다 새해 유망자격증, 유망직종 등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도부터는 '새 천년 유망자격증(직종)', '밀레니엄 유망자격증(직종)' 등 여기 저기서 갖가지 자격증 관련 정보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러면 과연 유망자격증이란 어떤 것일까?

자격증의 생명주기

자격증도 생물처럼 생명주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신생, 성장, 소멸의 순환을 갖는다는 것이다.

자격증은 어떤 직무분야가 그와 관련된 직무 군에서 점차 독립되고 특화되는 기간을 거쳐 해당 직무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자격 관리를 통한 인력관리, 능력개발 등의 필요에 의해 신설된다. 그러므로 신설자격증은 그 사회적 배경과 무관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신설자격증은 그 생성 초기에는 '유망자격

증'의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산·부기 자격증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상업계 고교 졸업자들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만 하고,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격증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PC의 발달로 인해 신생 자격증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망자격증은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유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유망한 자격증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유망할 지는 짐작할 뿐이지 확정적이지 못하다.

우리는 자격증 선택에 있어서 '유망자격증'이라는 것이 다소 상대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네트워크 관리자'의 경우, 현재는 인력수요가 많아 취업이 용이한 편이다.

특히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유망자격증일 수 있다. 그러나 학원 등을 통해 몇 년 후에 자격증만을 취득한 경우라면 과연 유망한 자격증이

라고 할 수 있을까?

때문에 우리는 유망자격증을 선택함에 있어서 관련 경력, 전공, 적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자격증 체계

우리나라는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에 의해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부터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를 실시하여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하고 자격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공인된 민간자격은 35종이 있으며, 그 외의 민간자격은 민간 단체, 협회 등이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보검색'의 경우 인터넷정보검색사, 정보검색사, 정보검색사 인증시험 등이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가 시행하는 인터넷정보검색사의 경우만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다. 자료제공: 서울지방노동청 중부고용인정센터

35mm 세상



학내 곳곳에 환하게 핀 꽃들은

저마다 봄이 왔다고 속삭입니다.

햇살 가득 따뜻한 교정을 거닐며 봄의 정취를 느끼는 동안

강의실을 향하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집니다.

염태규 사진부장
snail11@dongguk.edu

학내외 다채로운 식목일 행사

월드컵 개최기념 동산 조성 생자대 식목일 기념행사 등

오는 5일부터 3일간은 개강하고 찾아온 첫 번째 연휴다.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과 산지의 자연화를 위해 제정된 식목일과 함께 하는 이번 연휴 여행 계획에 식목행사 참여를 넣어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특히 올해 식목일에는 UN이 정한 '세계 산의 해'를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돼 행사를 찾아다니는 재미도 쏠쏠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에서는 세계 산의 해와 월드컵 개최를 기념하는 동산 조성 행사가 식목일에 맞춰 개최될 예정이다.

산림청이 주최하는 이 동산에는 향토 경제수, 경관수와 꽃나무가 조화롭게 식재되며, 월드컵 참가국 32개 나라의 상징수종을 나라별로 배열하게 된다.

또한 경주에서는 식목일 당일엔 경주 엑스포 공원과 보문단지 일원에서 산림현장 선포식과 각종 이벤트가 개최된다. 행사는 숲 가꾸기 경연대회, 기념식수, 나무 나누어 주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남 진해지역에서는 식목일을 맞아 군항제가 열리며, 제주도에서는 남국의 봄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왕벚꽃 잔치'가 개최된다. 또 용인 에버랜드·서울대공원 등에서는 튜립축제 등 봄꽃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캠 생명자원과학대(학장=오정수·



산림자원학, 이하 생자대)도 식목일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산림자원학과 50주년 기념을 겸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4일 경기도 남양주시 운길산 연습림에서 열리며, 행사 참여자는 고로쇠 나무 200주와 스트로브 잣 나무 100주를 심게 된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Q & A



전과 신청 (서울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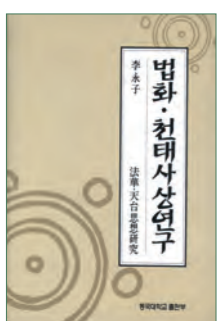
- 전과 자격은 4학기 평점 2.50이상인 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제한사항은 없나요?
= 전과 신청자격은 4학기를 수료한 3학년 진급예정자로서 누계평균평점이 2.5이상이어야 하며 면접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사범대 및 예술대, 체과과는 교직원적성검사와 실기시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학생증 재발급 (경주캠)

- 제일은행이 철수했는데 학생증을 재발급하면 조흥은행 카드로 만들어 주나요?
= 조흥은행 카드는 본인이 필요할 경우만 별도로 조흥은행에서 현금카드를 만들면 됩니다. 학생증에 조흥은행 현금기능이 복합된 카드를 발급해보니 학생들이 조흥은행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조흥은행에 거래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필요한 경우만 조흥은행 현금카드를 만들면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 Q&A방에서)

책소식

법화·천태사상연구



본교 불교대학장을 역임한 리영자 교수가 법화사상과 천태사상에 관련된 논문과 글들을 엮어 출간한 책.

초기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전개되는 사상체계를 결론짓는 법화사상과 중국불교사상의 고봉을 저자가 이전에 발표한 '한국천태사상의 전개'의 사상사적 접근을 바탕으로 두고 새로운 해석으로 천태불교를 구명해 보려고 시도했다.

리영자 지음/ 본교 출판부 / 정가 1만6천원.

배낭에 담아온 인도



본교 불교대 인도철학과 김호성 교수가 쓴 인도 가족 여행기. 2000년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해 네 차례에 걸친 여행을 통해 체험한 인도를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가족이라는 '해석공통체'가 등장해 간간히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전공학자의 시선에서 수 천년 역사를 가진 인도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다리를 놓아 보는 책이다.

김호성 지음/ 여시아문 / 정가 9천원.

직장인을 위한 변명



우리 사회의 모든 율급쟁이에게 친구이자 동료로서 저널리스트 권영설이 바치는 책. 이 책은

꿈을 접고 하루 하루를 보내기 쉬운 직장인들에게 삶의 올바른 방향과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빠른 변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책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저자의 책은 독자를 안심시키며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변화를 권하고 있다.

권영설 지음/ 거름 / 정가 1만원.

독자광고

독자광고는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하숙집 구함, 아학교사 모집, 각 동아리·학생회 소모임 등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등 분야에 제한없이 순수한 독자들의 광고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영자신문사 The Dongguk Post

수습기자 모집

끊임없는 자기開發.
다양한 경험은 대학생들의 필수입니다.

영자신문사에서 만끽하십시오!

대 상 : 02학년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2년 4월 11일 오후 5시까지
필기 시험 및 면접 : 2002년 4월 11일 오후 6시
장 소 : 학생회관 지하 1층 영자신문사 동국포스트
문 의 : (02) 2260-3493
* 전 기지에게는 장학금과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동국대학교 영자신문사
The Dongguk Post

음악과 사랑이 함께 하도록

SINCE 1985

음악 들으러 오세요

따뜻한 소파와 음악이 함께 하는 곳 이곳에 오시면 낭만이 있습니다.

경주캠 학생회관 2층 음악감상실

동국대 검도 동아리 검선!!

검선에서 2002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경주캠)

문의 회장-016-823-2633
www.freechal.com/kumsun

검도를 처음 하시는분, 배우셨던분, 남다른 애정이 있으신 분 모두 모두 대환영입니다. 매일 오후 6시에 운동 하오니 체육관으로 구경 오십시오.